



2019
학생성공스토리
공모전 수기집

대
학
생
활
성
공
이
야
기
를
담
다



우리들의
성공수다



대
학
생
활
성
공
이
야
기
를
담
다

우리들의
성공수다



성균관대학교
SUNGKYUNKWAN UNIVERSITY

학 생 성 공 센 터
STUDENT SUCCESS CENTER

학 생 성 공 센 터

STUDENT SUCCESS CENTER

2019 학생성공스토리 공모전 시상식

일시 : 2019년 12월 20일(금) 오후 5시

장소 : 국제관 학생성공센터

주최 :  학생성공센터
Student Success Center



왼쪽부터 도경희, 전수빈, 이용재, 염태민, 배상훈 학생성공센터장, 권수연, 이은정, 박소정, 정세윤

CONTENTS

서문

아홉 청년에게서 희망과 미래를 보다

글로벌

논어의 길을 따라 워싱턴으로

김도훈 08

서울 촛뜨기, 세계를 바라보다

전수빈 20

자기 주도성

질문과 실행을 통해 나의 대학생활을 디자인하다

권수연 30

스스로 구하는 배움의 즐거움

이은정 42

기업가 정신

주체성을 갖고 도전하는 삶, 작은 것이라도 나눌 줄 아는 삶

박소정 56

융합

문과생, 개발자가 되다

도경희 66

정답은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다

이용재 76

시민 의식

소소함에서 탄생한 거창함

염태민 84

멘토링으로 꿈꾸는 따뜻한 미래

정세윤 94

아홉 청년에게서 희망과 미래를 보다

삶은 끊임없이 당면하는 기회에 대한 도전으로 꾸며진다. 어떤 사람은 적극적으로 기회를 찾고 도전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막상 기회가 다가와도 그것을 알아채지 못하고 지나친다. 물론 좋은 기회라는 것을 알면서도 새로운 모험이나 시도가 두려워서 도전을 머뭇거리고 망설이는 경우가 많다. 대학생들의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다. 익숙함과 편안함을 주는 환경에서 벗어나는 것이 두렵고, 새로운 것을 시도함으로써 얻게 되는 보상도 뚜렷하지 않기 때문이다. 정서적으로 충분히 성숙하지 못하고, 거친 환경에 놓여 본 경험도 많지 않은 학생들에게 이러한 모습은 당연할지 모른다. 그러나 분명한 점은 무언가에 대한 도전이 없다면, 새로운 성취를 기대할 수 없고 새로운 길을 개척해갈 때 갖게 되는 묘한 긴장감과 설렘은 물론 생동감이 있는 삶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사람은 홀로 살지 않는다. 즉,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사람들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성장하고, 이러한 적극적인 교류는 자신이 속한 집단이 진화하고 발전하는 데에도 영향을 미친다. 또한, 사람은 자신이 속한 공동체와 유대감을 느끼고 상호작용을 하기도 한다. 이 과정에서 개인은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들 수 있고, 공동체는 개인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할 수도 있다. 물론 이는 구성원들이 자신에게 맡겨진 역할을 이해하고, 그것을 행하려고 최선을 다할 때 가능하다. 따라서, 공동체 삶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 특히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대학 시절에 배워야 할 중요한 덕목이다. 꿈을 꾸고 자신의 삶을 개척하면서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는 태도를 기르는 것은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학습 경험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는 말처럼 쉽지 않다. 당장 자신에게 닥친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헌신으로부터 얻게 될 대가도 확실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피동적인 각자도생(各自圖生)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것이 당연하다고 느낄 수 있다. 청년으로서의 대학생도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이 책이 소개하는 청년들의 사례는 사뭇 다르다. 이 책에 등장하는 아홉 청년들은 현실에 안주하기보다 자신의 꿈과 비전을 찾아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다. 전공과 학과라는 닫힌 틀에서 벗어나, 넓은 배움의 세계로 항해를 하는 중이다. 세계로 나가 꿈을 펼치는 기상을 엿볼 수도 있다. 게다가 이들은 자신의 성장은 물론 공동체의 발전에도 이바지하려고 애쓴다. 자신이 배우고 경험한 것을 동료들과 나누려고 하고, 자기 주도적으로 미래를 개척해가는 삶을 살아간다. 이 청년들에게 두려움과 한계라는 말은 도무지 어울리지 않는 듯하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여러 이유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매서운 환경에 당면한 대학생들도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책에 등장하는 청년들에게서 ‘희망(hope)’과 ‘미래(future)’를 본다. 우리 고등교육이 나아갈 방향을, 미래 대학교육을 어떻게 디자인해야 할지에 대하여 깊은 영감을 준 청년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 우리 대학이 추구하는 비전으로서 ‘수기치인(修己治人)’과 ‘학생 성공(student success)’은 여기 나온 청년들의 모습과 삶에서 찾을 수 있었다.

성균관대학교 학생성공센터 센터장
배 상 훈 (교육학과 교수)

학 생 성 공 센 터

STUDENT SUCCESS CENTER



수상자(왼쪽부터) 권수연, 염태민, 전수빈, 도경희, 김도훈, 이은정, 정세윤, 이용재

2019년 3월, 국내 대학 최초로 성균관대학교에 개소한 ‘학생성공센터’는 학업, 비교과, 진로, 취업 등 다양한 분야에 관한 1차 상담을 통해 학생을 캠퍼스 곳곳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교육 프로그램과 연결해주는 Gateway 역할을 한다. 또한 학생지원의 질적 향상을 위해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특강, 설명회를 시행하고, 교수·학생 멘토링, 학생성공스토리 공모전 등 학생성공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있다.

“우리들의 성공수다: 대학생할 성공이야기를 담다”는 2019년 11월에 시행된 ‘2019 학생성공스토리 공모전’에 지원한 35개 학과 51명 학생들의 대학생할 경험 중 성균관대학교의 건학이념인 ‘수기치인(修己治人: 자신을 수양한 후 남을 도와줌)’을 실천한 아홉 청년의 이야기를 글로벌, 자기주도성, 기업가정신, 융합, 시민의식 등 5개의 「학생성공역량」으로 분류하여 편집한 수기집이다. 책에 글을 쓴 아홉 명의 학생들은 총장 추천 학생 명단인 2019 학년도 「President’s List」에도 이름을 올리는 쾌거를 이루었다. 자신의 진로를 찾기 위한 여정이자 꿈을 실현하는 과정이기도 한 학생들의 신나는 모험과 끝없는 도전 이야기가 학우들에게는 아이디어를, 후배들에게는 영감을 주어 그들이 각자의 꿈과 진로의 방향을 찾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



논어의 길을 따라 워싱턴으로



김도훈(15학번, 사회학과)

들어가며

고된 입시를 끝내고 대학교에 입학한 뒤 1~2년 동안 즐거운 대학생활을 보내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번쯤은 ‘나는 왜 공부를 하는가’의 질문에 마주하게 된다고 나는 믿는다. 이 수기는 이러한 고민에 대한 나만의 답을 내리고 이를 실천하는 작은 성공의 기쁨을 성취하며 꿈을 향해 한걸음 씩 나아가는 노력의 과정을 담은 것이다. 그 자체로 거창한 성취나 발견은 아니지만 스스로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고민과 시도를 학생성공의 모델 중 하나로서 학우들과 공유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 나는 이를 강의실, 경찰청, 워싱턴의 세 가지 줄기로 나누어 소개하고 함께 생각해볼만한 가치를 제시해보고 싶다.

가장 오래된 지혜에서 가장 명확한 답을 찾다 -강의실-

이야기는 내가 1학년이던 2015년 1학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영어유치원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장장 13년을 무거운 책가방을 메고 학교와 학원을 오갔던

내 삶의 이유는 좋은 대학교에 들어가기 위해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명문대에 가야 평생을 편하게 살 수 있다는 명제는 가족과 선생님, 심지어 친구들에 의해서도 반복되고 강화되는 말이었다. 사람은 누구나 다양한 취미와 적성을 가지고 있지만 저마다의 선호에 따라 인생을 설계하는 일은 불안정하고 위태로운 길에 들어서는 것과 비슷했다. 반면 이유를 막론하고 일단 대학교 입학허가서를 받으면 안정적이고 편안하게 노력하지 않아도 앞길이 열릴 것만 같았다. 이러한 명확한 목적을 위해 다른 의문을 품지 않고 달려가는 것이 학생의 본분으로 여겨졌다. 지난한 시험기간마다 가끔씩 찾아오는 ‘공부는 왜하는지 무엇을 위해 하는지’의 질문은 당장의 목적 달성에 도움될 것이 없는 부수적인 것으로 여겨졌고 그래야만 했다.

고생 끝에 성균관대학교에 합격했다. 인고의 시간 끝에 얻은 대학교 합격의 기쁨은 컸다. 이제 친구들과 밤을 새서 좋아하는 게임을 해도 된다. 날씨가 좋으면 자체 휴강을 하고 한강으로 놀러가도 된다. 가고 싶은 여행도 눈치보지 않고 마음껏 가면 된다. 빛나는 스무살을 맞은 친구들과 함께 매일매일 축하의 술잔을 기울여도 된다. ‘공부는 끝났다!’

대학교에 오면 공부가 끝나는 줄 알았다. 내신 1등급을 맞기 위해서는 고등학교에서는 4%안에 들어야 했는데 대학교에서는 30~40%안에만 들면 되었다. 힘들 것이 없어보였다. 그러나 공부 걱정은 제쳐두고 한 학기 두 학기 시간을 보낼수록 나는 무언가 고등학교 때보다도 더 찝찝한 회의감에 직면했다. 대학교에만 오면 가만히 있어도 핑크빛 미래가 펼쳐질 거라고 생각했지만 현실은 조금 달랐다. 주변을 돌아보면 나와 같이 파티같은 나날을 보내는 친구들도 서서히 공모전, 봉사 활동, 자격증, 영어스터디를 준비하고 있었다. 학점도 전부 비슷한 학생들과 경쟁하다보니 높은 성적을 거두는 것이 점점 더 힘들어졌다. 같이 새내기 배움터를 다녀오고 학회와 동아리에서 활동하던 선배들도 하나둘 취업 준비를 향해 무리에서 멀어져갔다. 결국 나는 그동안 미뤘던 왜 대학에 가야하는지 대학에서 무엇을 왜 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를 통해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지의 질문에 부딪힌 것이다.

물론 이런 고민을 매일했던 것은 아니지만 결정적으로 어떤 수업을 들으며 진지하게 생각했는지를 꼽으라면 나는 2학년 2학기에 들었던 논어 수업을 꼽고 싶다.

논어는 마음 한 켠의 근심과도 같은 것이었다. 우리학교를 졸업하기 위해서는 전공을 불문하고 ‘성균 논어’를 들어야 한다. 이름만 들어도 지루한 동양 고전 텍스트를 읽으며 고등학교 때나 했을 법한 학자들의 이름과 이론을 빠짐없이 암기해야 할 것 같은 느낌에 숨이 턱 막혔다. 사물인터넷과 인공지능의 시대에서 성균 논어를 졸업 필수조건으로 고집하는 학교가 다소 의문스럽기도 했다. 그러나 망남미룰 수는 없는 일이었다. 고학년이 될수록 T/O가 줄어들어 수강신청 경쟁이 치열해지고 전공 수업을 듣기에도 벅찰 시간에 필수교양을 수강하는 것은 더욱 부담이었기 때문이다. 결국 울며 겨자먹기로 2016년 가을 논어를 수강하게 되었다.

첫 수업날. 한 학기 동안 지루한 학자들의 이론에 시달릴 생각에 벌써부터 한숨이 나왔다. 강의실에 들어섰는데 구조가 뒤로 갈수록 높아지는 계단식 강의실이라는 것을 확인하자마자 교수님 눈에 띄지 않기 위해 친구와 함께 맨 뒷자리에 앉았다. 그리고 논어 시험공부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넋두리를 하며 수업이 끝나고 오늘은 어디로 놀러갈지 잡담을 나누었다. 그러나 교수님이 들어오시고 말씀을 시작하시자 나는 순간적으로 대화를 멈출 수밖에 없었다. 교수님이 “수업은 토론식으로 진행됩니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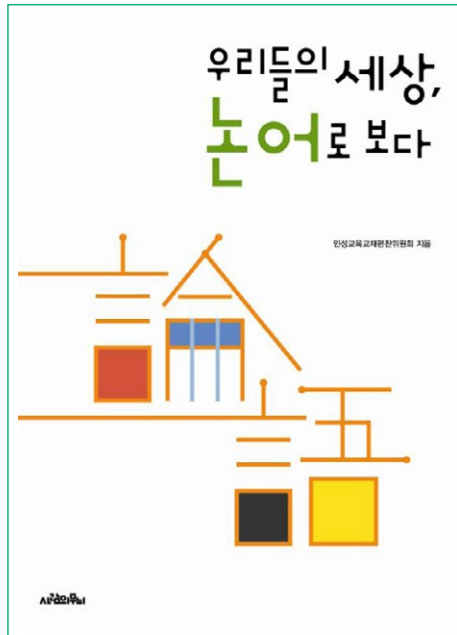
논어가 과연 토론의 대상이 될 수 있을까? 달리 말하자면 공자의 가르침이 토론의 대상이 될 수 있을까? 당시 나에게 이는 상상치도 못한 전개였다. 마치 성경의 내용을 가지고 진위여부를 다뤄보자는 말과도 비슷하게 들렸기 때문이다. 하지만 논어가 토론이 가능한 것인지도 결국 토론의 대상이 되었다.

처음에는 나와 비슷한 의문을 품은 학생들도 많은 것 같았지만 매주 팀별로 토론 주제를 정해 발표를 준비하고 참여하는 학생이 늘어나자 나중에는 강의실이 학생들의 흥미로운 생각으로 가득차 마치 살아있는 것 같았다. ‘과거와 미래는 상충하는가?’, ‘고전의 현대적 의미는 무엇인가?’, ‘무엇을 위해 사는 것이 옳은 삶인가?’

수업에서의 토론은 평소에는 애써 불필요한 문제라고 생각했던 질문들을 진지하게 마주하고 고민해볼 수 있는 기회였다. 그것은 결국 항상 1순위였던 지식 암기와 답 안지 마킹에서 한 걸음 물러나 ‘살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무엇을 위해 우리는 공부하는지’에 대한 고민으로 귀결되었고 나는 나름의 답을 내릴 수 있었다.

내가 배우는 지식이 단지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이를 이롭게 하고 생각하게 할 수 있을 때 의미가 있다는 것. 그러기에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노력을 이어가는 내가 가치 있다는 것이 논어를 토론하며 얻은 ‘나는 왜 공부하는가’에 대한 잠정적인 결론이었다.

이러한 생각은 과제로 ‘수신(修身)’ 대한 레포트를 작성하면서 정교화 되었다. 개인의 노력이 어떻게 사회에서의 큰 영향력으로 이어지는지를 보여주는 수신제 가치국평천하의 ‘수신’이었다. ‘수신과 나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나는 앞으로 어떤 모습의 내가 되기 위해 노력할 것인지에 대한 생각을 학교생활, 인간관계 그리고 가족의 영역으로 나누어 정리해보았다. 학교에서는 ‘평소에도’ 성실하게 배우고 익히는 사람이었다. 인간관계에서는 분명하게 말하고 말한 것을 지켜 신뢰를 주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가족과는 가까울수록 소홀해지지 않도록 경계하는 사람이었다. 대학교에서 처음으로 나의 생각을 진지하고 진솔하게 풀어나갔던 이 레포트는 학기초에는 기대치도 못했던 A+의 학점을 가져다 주게 되었다. 수업이 끝날 때 나는 맨 앞 자리에 앉아있었다.



성균논어 수업의 교재인 『우리들의 세상, 논어로 보다』

종강을 하고 시간이 흐르자 마치 알콜이 날아가듯이 수업의 생생한 기억도 대부분 휘발되었다. 그러나 나는 세상에 기여함으로써 나를 값지게 만들어주는 공부를 기억하기 위해 논어의 두 가지 문구만은 잊지 않기로 다짐한다. 바로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을 걱정하지 말고 내가 남을 알지 못하는 것을 걱정하라(不患人之不己知, 患不知人也)’ 그리고 ‘배우기만 하고 생각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고, 생각만 하고 배우지 않으면 위태롭다(學而不思則罔, 思而不學則殆).’가 그것이다. 그 중 ‘환부지인야’와 ‘사이불학즉태’ 다른 이를 생각하고 성찰하는 지식이 중요하다는 교훈은 그 후 내가 공부를 하다 힘이 들거나 방향을 잡지 못할 때 나를 붙잡아주는 기치가 되었다. 그러던 중 나는 2017년 2학기에 의무경찰로 입대하게 된다.

보호받지 못하는 이들을 생각하며 - 경찰청

두 번째 이야기는 서울지방경찰청(이하 서울청)에서 있던 일이다. 서울청은 경찰서 간 업무를 조정하거나 중요 사건을 직접 수사하고, 또 민원인의 통합 창구 역할을 하는 서울 경찰행정 중심지이다. 이 중 나의 임무는 민원 업무와 관련하여 건물로 진입하는 도보 통로인 정문안내실에서 이루어졌다. 정문안내실은 청사 방호와 민원인 안내 그리고 간단 행정업무 처리하는 곳으로 두 명의 의경과 한 명의 경찰 직원이 상주하고 있다. 여기서 방문자의 출입권한을 확인하고, 민원인을 청사 안으로 안내하거나 간단한 민원을 직접 처리하거나 민원실로 인계하는 것이 나의 역할이었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것은 어렵지만 가장 큰 어려움으로 다가왔던 점은 관료적인 조직의 모습을 처음으로 가까이 마주한 것이었다. 서울청은 청사 앞에서 크고 작은 시위가 많고, 강력 범죄자들이 건물 안에서 조사를 받으며, 경찰 수뇌부가 상주하는 곳이기에 항상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는 일촉즉발의 긴장상태에 놓여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혹시 모를 행동으로 의도치 않게 책임질 일이 발생하는 것은 매우 번거로운 일이기 때문에 이곳에서는 이런 위험을 가장 효율적으

로 차단할 수 있는 철저한 매뉴얼 중심주의가 자리잡고 있었다. 매뉴얼의 원칙을 풀어서 말하자면 간단하다. 처리해야만 하는 일은 처리하고, 애매한 일은 종로경찰서나 신문로파출소로 보내고, 처리할 의무가 없는 일에는 관여하지 않는다. 그러나 모든 일이 칼로 무 베듯이 세 가지 범주 속에 분류되진 않았다. 오히려 확실하게 직접 처리할 수 있는 일보다는, 민원 자체도 불분명하며 책임 소재도 특정하기 어려운 일이 판단을 요구하는 문제의 대부분을 차지하기도 하였다. 사전 약속된 민원인이나 경찰청 출입기자보다 그렇지 않은 사람이 더 많았다.

국정원이 자신의 머릿속에 칩을 심었다고 감시를 당하고 있으니 도와달라는 사람, 가수 김종국씨의 부인인데 집에 가야하니 김종국씨의 집주소를 알려달라는 사람, 청장실까지 들릴 소리로 보상을 외치며 무작정 안으로 들어가려는 사람도 있었다.

매뉴얼 상으로는 모두 강력히 통제하고 몇 차례 응하지 않으면 신문로 파출소에 도움연락을 청해 인계해야 했다. 그러나 항상 이런 규칙만으로는 상황이 완전히 해결되지 않는 것같은 씁쓸함이 남았다. 한국말을 사용할 수 있는 분은 그래도 말이라도 통하니 다행이었다.

문제는 외국인이었다. 홍대에서 밤을 새우며 놀다가 여권을 잃어버렸는데 길을 헤매다 무작정 광화문으로 달려와 경찰 마크 하나만 보고 들어온 중국인,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이 서울역사박물관인줄 알고 잘못 찾아가 길을 물어보려고 들어온 일본인, 그리고 경복궁을 관광하다가 한복 반납 장소로 가던 중 부모님을 잃어버려 울고 있는 미국 여자아이, 모두 저마다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만 매뉴얼 상으로 구제받기 어렵고 소통도 어려워 외면당하기 십상이었다.

그러나 여기서 두 가지 생각이 들었다. 이들을 제대로 도와주지 못하면 이 많고 촘촘한 규칙이 다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에 의문이었다. 그 다음으로는 ‘나는 어디다 쓰려고 19년 동안 영어를 공부해 왔을까?’라는 생각이 뒤따랐다. 나는 이것이 베풀지 않고 성찰하지 않는 지식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에 대한 논어적 물음이라고 감히 확신한다. 앞에 나서서 남을 도와주는 것을 잘하는 성격은 아니지만

내가 바른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에 용기가 났다. 번잡하고 바쁜 안내실에서 나는 능숙하지 않은 영어지만 이들을 손짓발짓하면서 도와주었다.

여권을 잃어버린 중국인은 중국대사관에 연락해 인계해주었고, 박물관이 헛갈린 일본인은 구글지도를 켜서 위치를 보여주며 설명해주었다. 부모님을 잃어버린 아이는 먼저 의자에 앉혀 코코팜을 갖다 주고 다행스럽게도 부모님 전화번호를 물어 직원 핸드폰으로 연락해 찾아주었다. 이후에도 수많은 일이 있었지만 행정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을 도와주었던 경험은 내가 사회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존재라는 점을 일깨워주었다.

처음에는 혼자서 용기를 내어 행동했던 일이지만 시간이 지나자 외국인에게도 친절할 도움을 주려고 함께하는 동료 의경도 늘어났다. 언어의 장벽을 뚫고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다는 기쁨도 있었지만 타국에서 곤경에 처한 이들이 본국으로 돌아갔을 때 우리나라의 경찰이 이만큼 세심한 도움을 주었다는 점을 상기할 것 이라고 생각하면 가치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느낄 수도 있었다. 나중에



서울지방경찰청에서의 전역식 사진

는 공식적으로 부대 회의 안건으로 부처 외국인 민원인을 효율적이고 친절하게 응대할 수 있는 간이 매뉴얼을 만들게 되었다. 기존 매뉴얼의 한계에서 머물러 한탄하기 보다 이를 수정, 보완할 점을 찾아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새로운 질서를 덧붙일 수 있었던 일은 구성원들의 지지가 뒷받침되어 이루어던 쾌거이기도 했다.

부끄럽게도 근무 중에 날아온 감사편지 뿐만 아니라 외국인들로부터 뜻하지 않은 감사를 받게 되었고 나 혼자만의 뿌듯함을 넘어 다른 직원과 의경 동료들에게도 인정을 받게 되었다. 그리하여 2018년 말에는 부대 대표로 소속 기동단장 표창을 받게 되었다. 배움을 실천하고 기존 규율의 한계를 보완해 가는 경험 속에서 존재의 기쁨 중 하나를 발견한 나는 군생활 동안 쳐다보지 않았던 영어공부를 시간을 쪼개면서도 즐거운 마음으로 하게 되었다. 그 결과 2019년 3월에는 군복무 기간 동안이었지만 토익점수를 855점에서 935점까지 끌어올릴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무사히 전역을 하게 되었다.

더 큰 세상에서 배움을 실천하기 - 워싱턴

2019년 6월 전역 후 지금까지의 경험을 통해 어떤 삶을 살아가며 사회에 기여할 수 있을지 고민하게 되었다. 규칙과 제도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 즐겁고 나의 행동으로 다른 이들에게 도움을 주는 일에 기쁨을 느꼈던 점이 떠올랐다. 사회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들까지 챙기며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 공부하는 것이 스스로에게도 가장 만족스러운 길이라고 생각을 정리하게 되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잠정적이지만 공익을 실현하는 변호사가 되는 것은 어떨지 진지하게 진로를 그려보았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각자의 가치를 존중하며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을 만들기 위해 국가가 중요하고, 그런 국가의 지탱원리 중 하나는 법이 될 것이다. 법률 지식을 공익의 목적을 위해 활용하면 많은 사람들을 돕고 사회를 더 윤택하게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다. 이를 위해서는 정의감, 학업 성취력, 인권감수성, 위기극복능력, 봉사정신 등 여러 역량이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2학기 전까지 전역 후의 휴식은 1학년 때의 자유로움과 비슷했지만 그래도 다른 점이 있다면 행동을 하기 전에 생각하고 계획하는 습관이 생겼다는 점이다. 적어도 공익 변호사의 직무적성이나 준비를 위해 미리 경험해보거나 준비할 것이 무엇이 있는지 탐색하며 자유로운 시간을 보냈던 것 같다. 그러던 중 교내 학생인 재개발팀에 올라와 있는 ‘WEST 프로그램’을 우연히 발견하게 되었다.

WEST 프로그램은 2008년 한미정삼회담에 체결된 교류사업으로 한국 대학생을 미국에 파견하여 인턴십 등의 기회를 제공하는 정부 사업이다. 후기를 읽어보니 이 사업은 미 국무부가 지정한 스폰서를 통해 인권법학회 등 인권 단체에서 일할 경험을 제공하고 있었다. 단지 한국에서 뿐만 아니라 외국으로 나가 공부하고 일하면 기존에 체험하기 어려웠던 경험을 하고 언어 능력도 향상시키며 다른 이들을 돕고 이해하기 위해 지식을 사용하는 것이 무엇인지 더 직접적으로 배울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래서 우연한 기회였지만 바로 지원을 결심하게 되었다.

그러나 정부사업인 만큼 지원요건이 까다로워 영어는 토익 850점 이상 토익스피킹은 140점 이상을 요구하고 있었다. 토익점수는 충족하였지만 토익스피킹에 응시한 경험이 없다는 것이 문제였다.

8월까지 지원을 완료해야 하는데 7월 말에서야 프로그램을 알게 되어 시간이 촉박하였다. 그러나 군복무 동안 외국인 민원인을 도왔던 경험과 이를 계기로 영어공부를 틈틈이 해왔던 습관을 발판으로 영어능력 서류제출 마감 기간 마감일 전 마지막 토익스피킹시험에 응시해 160점의 성적을 거둘 수 있었다. 요건 미달을 우려했지만 20점 이상 웃도는 결과였다.

2019년 12월 나는 다음 학기에 워싱턴 D.C에서 2개월간의 어학연수와 4개월간의 인턴십을 앞두고 있다. 인턴십 기업은 지원자의 전공과 선호, 지역 등을 반영하여 두 달간의 어학연수가 끝나는 시점에 정해지게 된다. 나는 스폰서에 영문 이력서를 작성해 보내고 인턴십 기관 희망조사에 비영리기구와 로펌을 1지망으로 제출하게 되었다. 출국이 10여일 남은 시점 나는 이전 참가자들이 6개월 동안 미국에서 성취한 경험을 살펴봄에 또 다른 나만의 도전과 미래를 그리고 있다.

공유 가치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통해 학우들과 두 가지 가치있는 삶의 모습을 함께 나눠 보고 싶다. ‘선한 영향력을 확장하는 삶’과 ‘주체적으로 목표를 정하고 정진하는 삶’이 그것이다.

첫 번째는 선한 영향력을 확장하는 삶이다. 입시성공을 위해 달려오고 대학교에서도 뒤처지지 않기 위해 노력했던 나는 나의 이로움만을 가장 확실한 인생의 안전장치로 생각해왔다. 그러나 서울지방경찰청에서 타국에서 진땀을 흘리고 있는 외국인 민원인을 도우면서 나누고 베푸는 일의 보람과 값어치를 생각하게 되었다. 이러한 선한 영향력은 일상 속 노력을 발판으로 국가와 기관을 옮겨 워싱턴 D.C.의 NPO나 로펌에서도 펼칠 수 있게 되었다. 최고의 지성을 갖춘 성균관 대학교 학우들도 자신이 공부하는 지식이 궁극적으로 사회에 기여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보면서 학교생활을 하면 학교생활의 보람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는 주체적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정진하는 삶이다. 지금까지의 성공이 항상 물 흐르듯 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중장기적인 목표를 설정하며 달성하는 과정, 즉 반복된 작은 승리의 기쁨은 꾸준히 다음 단계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자 기회가 되었다. 논어 강의실에서는 지금까지도 자랑으로 간직하는 A+, 경찰청에서 동료와 직원에 의해 인정받아 받은 총경 표창, 그리고 이제는 국책해외인턴사업 합격의 경험을 자양분으로 로스쿨 입학과 변호사가 되는 것을 또 다른 목표로 정진하게 되었



노을질 무렵의 워싱턴 D.C. 국회의사당 전경

다. 목표를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과 생각하지 않고 행동하는 것은 목표를 이루는 데 도움이 되는 기회를 재빠르게 포착하는 데 있어 큰 속도 차이가 난다. 꼭 거창한 것이 아니더라도 중장기적이고 달성의 쾌감을 느낄 수 있는 작은 목표를 설정하고 주의를 기울이면 기회를 발판삼아 더 큰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강력한 힘이 될 것이라 믿는다.

나오며

어느것 하나 처음부터 의도한 것은 없었지만 논어 강의실에 앉아있던 나는 지금 미국행을 앞두고 있다. 이는 ‘남을 해아리지 못하는 것을 걱정하고’, ‘생각 없는 배움을 경계하는 것’으로 구동돼온 ‘사회에 기여하는 삶이란 무엇일까’에 대한 나의 답이다. 앞으로도 생각지 못한 일들이 펼쳐지겠지만 선한 영향력을 확장하고 목표를 정해 정진하는 삶을 위해 나 스스로를 끊임없이 점검하고 돌이켜 보면 지금보다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나는 믿는다.

논어로 마무리 하자면 자신을 다스리는 자가 천하를 평한다는 ‘수신제가치국평천하’는 현대에는 사회의 큰 행복을 창출하는 작은 개인의 무한한 잠재성을 일깨워주는 말로도 읽힐 수 있지 않을까?

내가 생각하는 ‘학생성공’이란?

내가 경험한 학생성공은 명목적으로 성공과 실패를 구분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니었다. 그보다는 성공을 향해 달려가고 끊임없이 나아가는 과정 그 자체에 성공의 본질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학습의 의미와 방향을 스스로 진지하게 고민하여 설정하고, 사회에 기여하는 인물이 되기 위해 역량을 발휘하는 일련의 순간들이 모여 학생성공의 흐름을 이룰 것이다. 정리하자면 나에게 학생성공은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배움을 성찰하고 지식을 활용하는 지속적인 과정’이다.



워싱턴 D.C. 다운타운 건물 앞에서

서울 촌뜨기, 세계를 바라보다



전수빈(17학번, 경제학과)

2019년 6월, 문재인 대통령이 북유럽 국가들을 순방했습니다. 물론 스웨덴도 대상국 중 하나였습니다. 그 주 스웨덴의 수도 스톡홀름은 업무차 방문한 한국인들로 북적였습니다. 대사관뿐만 아니라 스웨덴에 진출한 여러 공공기관에서 한-스웨덴 파트너십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는 통역관 업무로 정신없이 뛰어 다니던 저, 전수빈이 있었습니다.

저의 성공 스토리는 끊임없이 문을 두드리고 또 두드렸던 끈기의 역사입니다. 남들이 좋아하는 일, 남들이 칭찬하는 일에서 벗어나 내가 좋아하는 일, 내 심장이 뛰는 일을 찾아다니는 성장의 기록



2019년 6월, 스톡홀름에서

이기도 합니다.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이 세계를 꿈꾸고 있다면, 저의 발자국이 조그마한 이정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글 속의 학창생활이 던져놓은 불씨

제가 살던 곳은 숲이었습니다. 아파트 숲. 아파트 옆에 아파트 그 가운데 자리한 초·중·고등학교에서 학창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곳은 대입, 그러니까 수시니 정시니 하는 것들에 최적화된 학생들이 모이는 곳이었습니다. 정글, 바로 정글이었습니다. 저 역시 그 학생들 중 하나였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라니까 열심히 하고, 학원 열심히 다니라니까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렇게 좋은 학생으로, 좋은 딸로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평소와 다를 것 하나 없는, 단조롭고 지루한 삶에 익숙해진 고등학교 1학년의 5월이었을 것입니다. 점심을 먹고 교실에 돌아와 잠시 눈을 붙일 심산으로 책상에 엎드렸는데, 아이보리색 커튼이 바람에 날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바람이 들어온 창문 밖을 바라보니 밖에 또 다른 철창이 보였습니다. 짙은 회색 건물을 빈틈없이 채우고 있는 회사원들과 밤늦게까지 빌딩 안을 밝히고 있을 형광등이 보였습니다. 그 순간 제 속에 어떤 뜨거움이 느껴졌습니다. 이대로는 평생 남들이 좋아하는 일, 남들이 박수치는 일만을 하며 살아갈 것 같았습니다.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문득 한국을 벗어나 세계로 나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한 번도 한국을, 아니 서울조차 벗어나 본 적이 없던 저에게 해외란 한국에서의 단조로운 삶과는 다른 흥미진진한 미지의 세계였기 때문입니다.

‘세계’라는 무작정 한 꿈은 그때의 저에겐 최선이었습니다. 그 불씨가 이후 저의 삶을 크게 바꿔 놓았다는 사실을 안 것은 아주 나중의 일이었습니다.

영어? 아직 늦지 않았어.

세계를 꿈꾸는 자에게 영어란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어쩌면 한국어보다 중요

할 때가 많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착실히 학교생활을 해온 학생에게 가장 약한 것이 영어이기도 합니다. 수능 영어의 기본이 되는 Reading과 Listening 영역에서는 세계 어느 나라의 학생들과 비교해도 절대 뒤처지지 않지만 가장 중요한 Speaking은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처음 대학에 진학했을 때는 자기소개조차 제대로 말하지 못했습니다. 영어로 말 한마디라도 해보려 시도하면 자꾸만 문법과 단어들이 머릿속을 뱅뱅 돌리다시피 했습니다. 무엇보다 말을 하는 것 자체에 대한 두려움이 컸습니다. ‘내가 말한 문장이 틀린 문장이면 어떡하지?’, ‘내 발음이 너무 어색하지는 않은가?’ 따위의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워 단 한 문장조차 자신 있게 내뱉을 수가 없었습니다. 세계로 나가야겠다고 생각은 했는데, 영어 한 문장 말하지를 못한다니! 일단 말하기 공포증을 극복해야 했습니다.

시간이 날 때마다 경북궁으로 달려갔습니다. 한국에서 외국인이 제일 많은 곳을 떠올리다 생각해 낸 것이 경북궁이었던 것입니다. 무작정 외국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어색한 발음으로 더듬거리며 ‘Beautiful country right?’ ‘May I help you with a photo?’ 따위의 말을 건넸습니다. 얼떨떨한 표정과 친절한 미소를 몇 번이나 마주쳤는지 모릅니다. 시도하기 전엔 상상만으로도 부끄러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용기가 필요한 건 처음 한두 번뿐이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약간의 오기와 약간의 즐거움이 남았습니다. 어떤 일은 일단 뛰어들어 보는 것이 가장 빠른 길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영어에 대한 두려움을 지우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꾸준히 영어를 듣는 일입니다. 자신 있게 말하는 것과 ‘잘’ 말하는 것은 다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는 외국인과 대화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드뭅니다. 제한된 환경에서 영어 실력을 쌓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꾸준히 미국 드라마, 혹은 영국 드라마를 보는 것입니다. 저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GLEE(글리)」라는 미드(미국 드라마)의 열혈 시청자였습니다. 물론 자막을 넣고 미드를 보는 것 자체가 당장 어떤 드라마틱한 변화를 가져다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경험으로 느낀 것은 분명 대사 한 문장 한 문장이 쌓인다는 것입니다. 말문이 트이고, 유창하지는 않지만 말

하기에 자신감을 갖게 된다면 내 안에 쌓인 그 대사들을 나의 문장에 녹이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폴란드, 첫발을 내딛다 - AIESEC Bialystok

영어에 대한 두려움을 어느 정도 극복한 이후, 단순히 외국인에게 말을 거는 정도가 아닌 그들의 삶 속에 들어가 보고 싶었습니다. 여러 기회를 알아보던 중 국제학생자치단체 아이섹(AIESEC)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외봉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른 여러 이유가 있었지만, 돈을 많이 들이지 않고 외국에서 살며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이 저에겐 큰 매력으로 다가왔습니다. 아이섹 성균관대학교 지부에서 필요한 서류를 비롯하여 각종 절차에 도움을 받았고, 스카이프를 통하여 폴란드 비아위스토크(Bialystok) 지부와 간단한 화상 면접을 본 후 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여러 파견 후보자 가운데 폴란드 비아위스토크를 선택한 이유는 ① 한국인이 적어 익숙한 한국의 문화에서 잠시 벗어날 수 있으며 ② 실제로 현지인들과 함께 먹고 자며 생활할 수 있는 조건을 제시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저의 역할은 지역 아이들에게 영어와 한국의 문화를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약 7주 정도의 시간 동안 폴란드 가정집



폴란드 아이들에게 영어와 한국 문화를 가르치다

에서 생활하며 태국, 싱가포르 출신 봉사자와 함께 팀을 이뤄 그들의 문화를 배우고, 제가 아는 것을 나누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사실 명시적으로 주어진 역할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각자의 나라를 대표하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아직은 동양인이 낯선 폴란드의 소도시에서 파견된 유일한 한국 인력이었습니다. 당시 비아워스토크는 파키스탄, 멕시코, 브라질, 태국, 캐나다, 홍콩 등 전 세계에서 파견 온 봉사자들로 가득한 그야말로 글로벌한 현장이었습니다. 아이썬 비아워스토크 지부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글로벌 문화를 소개하는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이곳에서 지역사람들, 그리고 세계 각지에서 온 봉사자들과 교류하며 저는 언제나 한국을 소개하고, 대표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제 스스로의 한계를 느끼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한국이라는 작지만 강한 나라에 대해, 특히 ‘한강의 기적’과 K-pop, K-뷰티에 관심을 가지는 수많은 사람들의 질문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실제로 한국의 역사와 K-트렌드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이 적었고, 영어 실력이 부족해 알고 있는 것들에 대하여 충분히 이야기해 줄 수가 없었습니다. 저의 배움이 아직 많이 부족함을 여실히 느끼며 첫 외국 생활을 정리하고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내 안의 실력을 키우다.

폴란드에서의 생활은 제게 두 가지 사실을 일깨워주었습니다. 첫 번째, 외국인과 일상에서 영어를 사용하며 함께 사는 것은 한국에서 쌓은 영어실력을 증폭시켜주는 기폭제 역할을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화장품, 과자 등 한국의 제품이 보일 때마다 시장 점유율이나 현지지의 평가를 찾아보며 무역 분야에 특히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깊이를 더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영어는 부딪침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회가 되는대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영어가 목적이었기 때문에 될 수 있는 한 많은 사람에게 말을 걸고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Oh, you came from Turkey? I love Turkish delight!”

“How is the economical situations nowadays in Algeria?”

다양한 배경에서 살아온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정치, 경제, 사회를 넘나드는 주제로 대화를 나누는 과정은 엄청난 경험이었습니다. 놀라운 속도로 영어실력이 향상되었을 뿐만 아니라 저와 같은 마음으로 세상을 배우기 위해 세상에 나온 이 시대의 청년들과 나누는 대화는 저의 가치관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기후변화, 인권, 난민 등 미처 알지 못했던 세상에 대해 알고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저는 그들에게 한국을 전하였습니다. 우리가 어떤 경제상황에 있는지, 마주한 딜레마는 무엇인지, 또 우리가 가진 경쟁력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였습니다. 세계 속의 한국을 고민하고, 그 속의 저의 역할을 고민하였습니다.



세상을 여행하며 사람을 만나고, 그들의 삶을 배우다.

경제학과 학부 수업에 더하여 현실에 더욱 가까운 경제를 배우기 위하여 성균관대 경제 토론회학회 세다(SEDA)에서 1년간 활동하기도 하였습니다. 신남방정책, 미·중 무역 분쟁을 비롯한 글로벌 이슈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탈원전 등 가장 현

실과 밀접한 주제를 선정하여 발제/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 단순히 이론적인 지식이 많아졌을 뿐만 아니라 어떠한 사안에 대하여 보다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 발제와 토론 활동 외에 저와 마찬가지로 국제무역에 관심이 많은 다른 학회원과 팀을 이뤄 국제통상 분야 토론대회에 나가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더해, K-트렌드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6개월간 카카오에서 에디터로 일하였습니다. <따뜻한 화채 만들기_한식의 재해석>, <채식주의자를 위한 콩곰창 만들기>, <전쟁과 분담의 역사를 담은 「우리를 갈라놓는 것들」 전시회 리뷰> 등의 콘텐츠를 기획·제작하였습니다. 다양한 역사 관련 콘텐츠를 제작하며 교과서적인 전달방식에서 벗어나 전시회 리뷰, 카드뉴스 등 다양한 콘텐츠를 매개로 역사를 전달해보려 시도하였습니다. 그 밖에도 한식의 재해석, 이너뷰티 콘텐츠 등 사람들이 가장 열광하는 ‘현재’의 트렌드를 현장에서 배웠습니다. 그 과정에서 기획력뿐만 아니라 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포토샵 등 기본적인 툴을 다루는 방법을 배우기도 하였습니다.

스웨덴에서 찾은 기회 - KOTRA Stockholm

세계로 나가고자 하는 어렵פות한 꿈은 해외봉사 프로그램, 카카오 에디터, 경제 학회 활동 등 다양한 경험을 거쳐 점점 형체가 뚜렷해지고 있었습니다. 점차 분야를 좁히는 제 자신을 발견한 것입니다. 좋아하는 경제 분야에서 한국과 세계를 잇는 방법을 찾고 있는 저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항상 ‘실무’에 대한 갈증이 있었습니다. 무역 분야가 적성에 맞을 것 같았지만 어디까지나 그것은 직접 겪어보지 못한 세계일 뿐이었습니다.

교환학생으로 스웨덴에서 생활하던 중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코트라(KOTRA)가 스톡홀름에 무역관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기회였습니다. 학부 수업 시간에 배웠던 수많은 경제 모형들과 국제무역을 논하는 술한 이론들

이 정말 현실에 적용되고 있을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던 실무에 대한 갈증을 해소하고 흐릿한 꿈을 보다 구체화해 볼 기회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의 열정과 지식을 마침내 활용해 볼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미친 듯이 방법을 찾았습니다. 한국의 공식적인 채용 절차를 통해서는 교환학생 신분인 제가 스톡홀름 무역관에서 일할 수는 없다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포기할 순

없었습니다. 무작정 코트라 스톡홀름 무역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늘 그랬듯이, ‘부딪히면 문이 부서지든 내가 나가떨어지든 하겠지’란 마음이었습니다.

“Hallå!”

스웨덴어로 전화를 받는 분께 한국어나 영어로 대화할 수 있는 분께 전화를 돌려달라고 스웨덴어로 부탁드렸습니다. 웬걸, ‘말씀하세요!’라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오랜만에 전화선 너머 들려온 한국어가 반가워서인지, 열정이 부끄러움을 앞지른 것인지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일을 하고 싶습니다. 어떤 일이든 상관없어요. 한국과 현지를 잇는 코트라가 해외에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제가 직접 보고 배우고 싶습니다.”

이력서를 보내라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저를 만나주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소득이었습니다. 만나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것. 그것이야말로 제가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얼마 뒤 방문한 스톡홀름 무역관에서 두 시간 남짓 부관장



한-스웨덴 비즈니스 파트너십 행사에서 통역관으로 일하다.

님과 면담을 할 수 있었습니다.

“수빈학생 이력서를 보니, 한 번도 편히 쓴 적이 없었을 것 같아요.”

부관장님이 제게 건넨 첫 한마디였습니다. 지금까지의 노력을 알아보신 듯하였습니다. 그녀는 그곳에서의 일과 삶에 대해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한국과 외국을 잇는 다리 역할을 수행하며 얻을 수 있는 보람과 고충에 대해서도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질문과 답변이 끊임없이 오갔던 면담이 끝나고, 앞으로 다가올 한-스웨덴 비즈니스 파트너십 행사에서 통역관으로 활동하며 한국에서 온 무역사절단 지원업무에 단기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용기 내어 무작정 문을 두드려온 저와, 저의 열정을 알아본 사람과, 대통령의 북유럽 순방이라는 타이밍이 만든 기막힌 기회였습니다.

2019년 6월, 스톡홀름 거리에는 낯선 듯 익숙한 한국어가 가득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스웨덴을 방문했고, 한-스웨덴 비즈니스 파트너십 행사를 주최하거나 지원하기 위해 대사관뿐만 아니라 무역협회, 코트라, 중소기업중앙회 등의 기관에서 수많은 외교 및 무역 전문가를 스웨덴에 파견하였습니다. 제가 통역관으로 참여한 행사는 한-스웨덴 수교 역사상 가장 큰 규모였습니다. 유럽 120개 사 바이어가 참여하였으며, 제가 통역을 전담한 한국의 한 중소기업은 하루 동안 11개 사의 바이어와 미팅을 진행하였습니다. 저는 통역뿐 아니라 제품 PR을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행사 참여자로 바이어와 대화를 직접 나누며, 한국 제품의 유럽 수출 절차들과 각종 환경 및 성분인증 등 세세하고 구체적인 업무 내용을 익힐 수 있었습니다. 또한 MOU 체결과 계약금액에 대한 대화가 이어지는 것을 목격하였습니다.

불과 몇 년 전 경북궁을 기웃거리며 말 한마디 건넨 외국인을 찾던 소녀는 유럽 120개 사의 바이어가 참여한 한국-스웨덴 비즈니스 미팅의 한국 수출업체 통역관이 되어있었고, 바이어와 비즈니스 미팅을 하며 한국의 제품을 홍보하고 계약 체결을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기회를 준비 중

제가 걸어온 길이 매일 평탄하기만 했던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영어는 유학파 아니면 힘들어”

“외국에 나가려면 돈이 엄청 많이 필요한 거 아냐?”

주어진 것에 만족하고, 시도조차 하기 전에 포기하고, 다른 사람들의 말에 의지했다면 그 어떤 발걸음도 내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한국에서 부족한 영어실력을 키워보고자 경복궁을 뛰어다니고, 한 푼이라도 아끼려 12인실 기숙사에서 자고 빵으로 끼니를 때우며 여행을 이어갔던 것은 보다 큰 꿈을 꾸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또 다른 기회를 준비하는 중입니다. 다음 목적지가 어디일지는 저 자신도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조바심 내거나 설부른 확신은 하지 않으려합니다. 안개 속을 걷듯 흐릿함 속에 내디딘 모든 발걸음은 오늘의 저로 이끌었고, 그것은 분명히 그 나름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경험으로 배웠습니다. 진심은 기회로, 기회는 열정으로, 열정은 또 다른 성취로 이어진다는 것ですよ. 두드리는 모든 문이 열리지는 않겠지만 제게 열리는 단 하나의 문은 저를 또다시 새로운 오늘로 이끌 것입니다.

이제는 제가 내딛는 모든 발걸음에 확신이 담겨있습니다. 어디로 향하는지가 아니라 바로 제 자신에게. 낯선 세상과 마주하는 것을 겁내지 않았던 저를, 전수빈을 믿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학생성공’이란?

제가 생각하는 ‘학생성공’이란 무작정 한 마음으로 뛰어드는 것입니다. 인생은 생각보다 쉽게 문을 열어주기 마련입니다. 제 발로 기회를 찾아 나섰던 사람들은 같은 도전을 하고 있는 이들을 알아보기 때문입니다. 두드리고 또 두드리다가 고개를 들면, 성공은 그 앞에 서 있을 것입니다.

질문과 실행을 통해 나의 대학생활을 디자인하다



권수연(15학번, 교육학과)

저의 개인적인 대학생활의 경험과 생각을 이 책에 등장하는 한 학생의 이야기로 담아내기까지 많은 망설임과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 때의 생생함을 담아내고 싶어 블로그에 적었던 글들도 다시 읽어보고 시기별로 작성했던 노트들도 찾아보곤 했습니다. 이 글이 누군가에게는 긍정적인 자극과 영향을, 누군가에게는 따뜻한 위로, 누군가에게는 희망과 설렘을 선물해주길 바라면서 권수연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반수 실패, 혼자 동굴 속에 있었던 시간

당연한 것을 당연하지 않게 여기며 ‘질문’을 던지기 시작하다

학창시절 나는 선생님들과 친하게 지내며 선생님 말씀을 잘 따르는 학생이었다. 중학교 때 담임 선생님과과의 만남이 삶을 크게 바꾸는 계기가 되면서 ‘학생 개인의 잠재력을 꽃피워주는 교사’라는 꿈을 갖고 교육학과에 입학하게 되었다. 중고등학교 내내 교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랐던 만큼(그 때 당시에는 이 꿈이 바뀔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했던 것 같다.) 내가 가르치고 싶은 특정 과목 교육학과가 아닌 단일 교육학과에 오게 되어 진로에 불리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

렇게 반수를 결정했고 남들에 비해 재미없고 치열했던 1년을 보냈다. 그리고 결과는 실패였다.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기에 후회는 없었지만 나는 해도 안 되는 사람이라는 패배감에 사로잡혀 힘든 시간을 보냈다. 방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며 끊임없이 자책하고 모든 문제의 화살표를 내게로 돌렸다.

그렇게 혼자 우울하게 보냈던 동굴 속 시간 중에 문득 선생님이 해주셨던 말이 떠올랐다. “열심히 노력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거야.” 어른들의 말을 잘 따랐던 나는 학창시절 선생님이 해주셨던 이 말을 굳게 믿고 힘들었던 수험생활도 버텨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했음에도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것을 경험하자 의심 없이 당연하게 믿어왔던 이 말에 처음으로 질문이 던져졌다. ‘좋은 결과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왜 아무도 노력의 과정에 대해서는 묻지 않는 것일까?’와 같은 질문들이 내 안에 생겨났다. 이렇게 처음으로 내가 당연히 해왔던 것들에 대해서 어찌면 우리 모두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통념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게 되었다. 이 질문을 계기로 대학생활을 하는 동안에도 당연한 것들을 당연하지 않게 여기며 많은 질문들을 던지기 시작했다.

“Arise, Shine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내가 모토로 삼고 살아가는 문구이다. 우리는 보통 Shine, 타인과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결과론적인 나의 모습에 대해서 먼저 생각하는 편인 것 같다. 교사라는 꿈을 꿔던 나를 포함하여 많은 이들이 이렇게 진로의 목적지를 먼저 설정한다. 하지만 목적지를 안다고 그 곳에 바로 갈 수 없고 가면서 우리의 마음이 바뀌기도한다. 그래서 우리에게 더 필요한 시간은 “나에 대해 이해하고 알아가는 시간”이다. Arise, 내가 나를 알고 나로서 온전히 서있는지에 대해 고민하며 찾는 시간이다. 이 깨달음을 통해 나는 내 자신에게 던졌던 질문 또한 바뀌게 되었다. 교사가 되겠다고 목적지를 미리 정해두었던 과거에는 ‘어떤 과목을 가르칠까?’라는 질문만 던졌지만 나 자신에 대해서 먼저 이해하자고 다짐하고 난 후에는 교육 분야에 대한 나만의 관점을 갖고자 ‘누구를 교육할까?’ ‘무엇을 어떻게 교육할까?’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었다. 해당 질문은 매해 나의 새로운 목표가 되었고 이에 따른 경험들을 해나가며 나만의 교육관을 세워갔다.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 능동적으로 탐색하기 위한 나만의 질문과 경험

누구를, 무엇을,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

첫 번째 질문 “[교육대상] 누구를 교육할 것인가?”

학교에는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가 있고 학교 밖에는 청소년 지도센터에서 청소년 지도사로 학생들을 교육하거나 글로벌 차원의 교육 문제를 다루는 NGO가 있다. 더 나아가서는 회사에서 회사원들을 교육하는 HR 분야도 있다. 교내 글로벌 창의리더 올림피아드 (탈북 청소년 대상 교육 플랫폼 기획), 청소년 대상 강의 및 지도사 활동, UN SDGs 홍보대사, 글로벌 HR 서포터즈 등 각 교육대상별 활동을 모두 직접 해보면서 교육 대상에 따라 달라지는 교육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었다. 또한 내가 가장 마음을 주게 되는 교육 대상은 누구인지에 대한 고민을 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두 번째 질문 “[교육내용] 무엇을 교육할 것인가?”

미래 사회에 필수적인 역량으로 꼭 언급되는 것이 ‘문제해결역량’이다. 문제 해결 방식인 ‘디자인씹킹’을 적용한 프로젝트에 참여하며 경험을 통해 직접 배워볼 수 있었다. 이외에도 창업 교육을 받고 1년간 직접 창업을 도전해보기도 했다. 다문화 및 세계 시민 교육과 관련해서는 국제 동아리 AIESEC에서 외국인과 함께 교육 과정을 짜고 봉사를 하거나 중국인 친구들과 함께 논문을 쓰는 활동에 참여하기도 했다. 요즘 가장 주목받는 코딩 교육의 경우 중학교 자유학기제 현장에서 직접 경험해보고 싶었다. 따라서 LG CNS 코딩 지니어스 교육 봉사자로 한 학기 동안 활동하며 Java, EV3, 앱 기획 등의 수업을 진행했다. ‘어떻게하면 학습자 중심의 교육 과정을 만들 수 있을까?’ ‘어디까지 알려주고 기다리는게 좋은 교육 자일까?’와 같은 고민을 하게한 경험이었다.

세 번째 질문 “[교육방법]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

학교에서는 주로 지식의 전달과 학습 방법에 대한 다양한 차원의 논의가 이루어지는 편이다. 하지만, 학교 밖에도 교육과 배움이 존재하고 이들은 주로 경영과

융합된 형태로 제공된다고 느껴졌다. 그 중에 가장 관심을 가진 분야는 바로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팅이다. 실제로 스파크랩이라는 글로벌 엑셀러레이팅 회사에서 4개월간 RA(Research Assistant)로 근무하면서, 현장에서는 경영 수업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그리고 비즈니스를 세워가는 과정에 대한 배움을 얻을 수 있었다. 또한 일방적인 지식 전달이 아닌 상호 발전 및 발견을 촉진하는 교육 방법으로 퍼실리테이션(Facilitation)을 배워 삶에 적용하기도 했다.



LG CNS 코딩 지니어스 교육봉사 활동

어떤 일을 할까(What) 결정하기 이전에 나만의 Why를 찾자
사회가 내게 묻는 질문에 답하기 전에 나와 충분히 대화하는 시간을 갖자

이러한 경험들을 통해 나만의 관점과 확신을 점차 쌓아갔다. 사람들은 내게 “교육학과면 무슨 교육학과야?” “졸업하면 선생님 할거야?” 라는 질문을 종종 묻고는 했었다. 이런 질문들에 새내기 때는 당황하며 어떻게 답변해야할지 고민 하곤 했다. 하지만 몇 년간의 다양한 교육 활동 및 경험을 통해 나의 교육관을 갖게 된 지금은 “교육이 꼭 특정 과목만 가르치는거야? 선생님이라는 직업의 형태

로 꼭 내 꿈을 표현해야하는거야?”라는 질문을 오히려 되물게 되었다. 나는 새내기 때 듣게 된 사이먼 사이넥의 Golden Circle 강의가 인상 깊어서 (TED에 검색하면 해당 영상을 찾아볼 수 있다. 강력추천!) 나의 삶에서 항상 Start with why, why를 충분히 고민하고 찾는 시간을 가진다. 주변 사람들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주로 어떤 일을 하면서 살면 좋을지, 즉 우리의 말로 뭐하면서 먹고 살지를 고민하게 한다. 이러한 What의 단계의 고민을 하기 전에 우리의 Why를 충분히 고민하고 찾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나의 경우 나만의 교육관을 찾기 위해 던졌던 위의 질문과 경험들로 나만의 why를 탐색했던 것 같다. 그 결과 내가 가장 마음이 가는 교육 대상과 해결하고 싶은 한국의 교육 문제를 찾게 되었는데 아래에서 더 자세히 소개하도록 하겠다.

공감 기반의 질문 중심 진로 교육, 라이프디자인

스스로에게 질문하지 않는 청년들에게 질문하고 함께 삶을 디자인하다

내가 가장 마음이 가는 교육 대상은 ‘대학생 청년’들이었다. 그리고 가장 해결하고 싶은 문제는 ‘질문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었다. 우리는 지금까지 시키는 공부는 열심히 해왔다. 하지만 막상 우리 인생에서 더 중요한 내가 좋아하는 일, 잘하는 일에 대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본 적이 없어 어렵게 느낀다. 많은 대학생 청년들을 진로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면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라는 말을 가장 많이 한다. 이들은 정말 한 것이 없어서 이렇게 느끼고 말하는 것일까? 막상 열심히 무언가를 하고 있는 친구들은 “일단 남들도 다 하니까 나도 뭐라도 하는거야”라고 말한다. 내가 어떤 활동을 해보고 싶은지 충분히 고민하고 스스로에게 질문한 후 활동을 하기보다 불안감에 먼저 시작부터 하는 것이다. 그 후에도 스스로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되거나 배운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보며 발견하는 시간을 갖기보다 또 무언가를 하기 위해 우리는 늘 바쁘다. 정리해보자면 아래와 같이 사고가 흘러간다.

대학 입학 후 무엇인가를 열심히 했음 (왜 그 경험을 했는지, 그 경험을 통해 무엇을 느꼈는지 정리 해보지는 않음) → ‘음 나도 이제 진로를 정해 볼 시기가 되었는

데!’ → ‘아 뭘 해봤어야 내가 잘하는 거나 좋아하는걸 알지. 난 왜 이렇게 한 게 없는 것 같냐’ → ‘혹시 다른 친구들은 뭐하지? 요즘 잘나가는 게 뭐지?’ → ‘나랑 맞으려나 잘 모르겠네. 이것저것 좀 미리 해둘걸 이게 뭐야. (좌절)’

인생의 중요한 전환기에서 한 발짝 앞으로 나가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앞을 보고 결정하기 전에 “내 뒤를 돌아보는 것”이다. 내가 지나온 길들에 어떤 발자국들이 있었는지, 그 방향과 의미는 어땠는지 등을 충분히 고민해봐야 한다. 이렇게 뒤를 돌아본 것을 바탕으로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스스로를 ‘공감’ 해주며 적극적인 ‘질문’을 던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 또한 이런 어려움을 직접 겪고 부딪히며 성장했던 만큼 이 문제를 마주한 대학생 청년들에게 더 공감되고 마음이 갔던 것 같다. 해결하고 싶은 이 문제를 품고 살아가던 중에 생각과 방향이 같은 디자인씽킹 퍼실리테이터 7분을 만나 2018년 2월 함께 라이프디자인 커뮤니티를 설립하고 교육과정을 개발하게 되었다.



라이프디자인 커뮤니티 설립 멤버

스탠포드 대학교의 [Design Your Life] 교육 과정을 스터디하며 한국의 문화, 사회적 맥락을 반영하고 학생들의 상황을 고려하여 발전시켰다. 대학생 청년들에게 필요한 진로 교육의 첫 번째는 일방향적인 지식 전달과 소통이 아닌 공감하며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고 발견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것이다. 둘째로는 빠르

게 변화하는 사회인 만큼 삶의 길을 하나로 정하고 ‘이 길 아니면 안 돼’라는 결정론적인 접근보다 다양한 길에 대해 충분히 상상하고 그려볼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혼자서 모든 것을 정해야 한다는 부담을 주기보다 서로 다른 경험과 관점을 가진 타인으로부터 배우며 ‘함께’ 길을 디자인해갈 수 있도록 경험을 제공해야 한다.

라이프디자인 여정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글로벌로 이어지게 된다. 그 여정은 한국인보다 지구를 품은 지구인으로 살고자했던 이야기와 연결되어 아래에서 소개하고자 한다.

한국인보다는 지구를 품은 지구인으로 살고 싶어 시험용 영어는 이제 그만, 진짜 영어로 외국인과 소통하다

영어 공부의 필요성을 절박하게 느끼게 된 건, 2016년 1학기에 「대학 교육의 이해」라는 국제어(영어)로 진행되는 전공 수업을 들으면서였다. 수업 중 교수님께 질문하고 싶은 사항이 생겼는데, 영어로 질문을 만들지 못했고 그렇게 수업이 끝났다. 내 생각을 표현하기 좋아했던 내게 그 경험은 다소 충격적이었다. 적어도 초중학교 때부터 영어를 공부한지는 10년이 넘는데 왜 나는 영어로 질문 하나를 못하는 것일지 객관적으로 돌아보게 되었다. 무엇보다 내 생각을 표현할 자유가 “언어”라는 틀에 제한된다는 사실이 너무 싫었다. ‘영어 공부는 많이 했는데도 왜 진짜 영어는 못하지?’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솔직하게 던지면서 알게 된 건, 지금까지 내가 배웠던 것은 시험용 영어였지 진짜 영어가 아니었다는 점이다. 속상하다고 해서 바뀔 것은 없으니까 억울한 감정 대신 절박함을 가진 채 내가 속한 환경에서 만들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이 무엇일지를 고민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문득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

내가 해외에 나가본 적이 없다면, 그리고 지금 당장 해외에 나갈 수 없다면 “국내에서 마치 해외처럼 살면 안되나?” “외국같은 경험을 할 수 있는 모든 기회를 찾아 나서면 안 되나?” 이러한 관점의 전환을 통해 “한국에서 최대한 영어를 많이 접할 수 있는, 내 주변을 글로벌화하는” 기회와 활동을 찾아 경험하기 시작했다.

추천하는 첫 번째 교내 영어 활동, 교내 교환학생 버디 ‘SG MAPLE’

SG MAPLE 활동의 경우 학교 공지사항에 매 학기마다 모집 공고가 올라온다. 버디 활동의 장점은 도움을 주는 입장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영어를 활용할 일이 생긴다는 것과 영어뿐만 아니라 그 나라의 문화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다는 점이 있다. 학교에서 자주 마주치며 소통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추천하는 두 번째 교내 영어 활동, 국제 리더십 학생협회 ‘AIESEC’

AIESEC은 126개국, 2400여개 대학에 있는 국제 연합 협회이다. 한국에서는 아래의 총 19개 대학에 AIESEC 지부가 있다.(그 중 성균관대학교는 당연 포함!) 지부마다 운영 방식이나 부서는 차이가 있지만, 국내 동아리 중에 외국인과 소통하고 프로젝트할 기회가 가장 많은 동아리인 건 정말 확실하다. 아이섹에서 진행하는 글로벌 활동으로는 “방학마다 다른 나라 AIESEC 지부에 탐방을 가는 스터디 투어와 외국인 자원자들과 함께 기획하는 다양한 프로젝트”가 있다. 나의 경우 2016년 여름 방학 때는 다문화 교육 프로젝트 EGG에 참여했고, 겨울 방학 때는 스타트업 인식 개선 BEAT IT 프로젝트를 참여했다. 이 외에도 한중일 포럼 NAS, 필리핀 스터디 투어 등 국제 교류 기회는 정말 마음만 먹으면 많이 주어졌던 것 같다. 나의 경우 교환학생을 갔던 덴마크에서도 AIESEC 멤버로 활동에 참여했다.



아이섹 활동 사진

이렇게 외국인들을 직접 만나 영어를 접하는 기회를 통해 영어를 “말할 수 있는 용기”를 얻고 기본 회화는 할 수 있게 된 나는 이제는 영어를 “제대로, 잘 말하고 싶다”는 새로운 목표를 가지게 되었다. 그래서 학교 안에서 학교 밖 대외활동으로 눈을 돌려 영어 회화 관련 활동을 찾아보던 중 영어 회화 학원 서포터즈를 참여하게 되었다.

추천하는 첫 번째 대외 영어 활동, 다양한 영어 회화 학원 서포터즈

영어 회화 서포터즈의 경우 최근에 다양한 학원에서 제공되고 있는 편이다. 수업을 무료로 받은 후 학원 및 수업에 대한 홍보 포스팅을 작성하는 방식이 보편적이다. 이외에도 본인이 어느 정도 영어 실력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영어 스터디 리더로 활동하면서 직접 수업을 준비하고 다른 레벨, 언어의 스터디를 무료로 받을 수 있는 서포터즈 활동도 있다.

추천하는 두 번째 대외 영어 활동, 글로벌 회사 인턴

Sparklabs라는 글로벌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터 회사에서 K-startup Grand Challenge(한국에서 사업하려고하는 외국 스타트업 정부 지원 프로그램) Research Assistant로 일하면서 6개월간 영어로 소통했다. 직접 스타트업을 보조하는 일을 하면서 스타트업을 하는 데에 필요한 역량과 지식을 쌓았고 동시에 외국 스타트업들과 소통하다보니 비즈니스 영어도 조금씩 배워갈 수 있었다.

한국을 Global화해서 이것저것 경험하며 영어에 대한 자신감이 조금씩 생기게 되니 이제 ‘진짜 해외’로 나가고 싶다는 마음도 점점 커졌다. 그렇게 대외활동의 꽃이라는 해외 탐방 도전했고 지금까지 총 7번의 해외탐방을 다녀올 수 있었다. 학교, 정부, 기업의 지원을 받아 북미(캐나다, 미국 동부&서부), 북유럽(핀란드), 아시아(싱가폴, 일본), 중동(이스라엘) 등 다양한 국가에 IT기술(빅데이터, 인공지능, 자율주행차), 창업, 복지&정책, 교육 등 다양한 연구 주제로 다녀왔다. 여러 대륙에서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에 1학기씩 캐나다, 덴마크에서 교환학생을 했다. 그 과정에서 제일 기억에 남는 것은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직접 라이프디자인 워크숍을 진행했던 경험이다. 아래에서 더 자세하게 소개하려고 한다.

해외탐방 7번 (캐나다, 미국 동부&서부, 싱가포르, 일본, 이스라엘, 핀란드)

교환학생 1년 (캐나다, 덴마크)

외국인을 만나면 도망가던 학생이 영어로 외국인 대상 워크숍을 진행하게 되기까지

교환학생을 다른 대륙에서 1학기씩 1년간 하려고 했던 것은 직접 살아보며 그 나라의 교육을 경험해보고 싶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외국의 좋은 교육을 한국에 적극적으로 가져오곤 하지만 나는 무조건적인 적용보다 각 나라에서 해당 교육이 가능했던 배경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 교육이 결국 문화, 사회, 경제 등 다양한 변수들의 영향을 받아 형성 및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직접 그 나라에 살아보고 변수와 교육의 상관관계를 연구해보고 싶었다. 따라서 나에게 중요한 연구 과제는 ‘다른 나라 사람들도 라이프디자인 교육이 필요할까? 필요하다면 한국과 구체적으로 다른 니즈는 무엇일까?’였다.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나와 라이프디자인 소개를 한 후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에게 수업을 진행했다. 카페, 공원, 호텔 등 다양한 곳에서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고민에 따라 맞춤형 수업을 했다. 수업이 끝나고 나면 늘 30분 이상 수업에서 어떤 점이 좋았고 어떤 점이 개선되면 좋을 것 같은지 구체적으로 피드백을 받으며 더 나은 수업으로 발전시켜갔다.

코칭을 통해 꾸준히 영어 라이프디자인 수업 콘텐츠를 발전시킨 후 덴마크에서는 더 큰 도전을 해볼 수 있게 되었다. 바로 외국인 대상 ‘라이프디자인 워크숍’을 진행해보는 것! 3년 전까지만 해도 나는 길을 물어보는 외국인에게 “I’m sorry”를 말하며 도망갔었다. 꾸준히 쌓아왔던 영어실력을 바탕으로 더 큰 도전을 해보기로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크숍은 대규모로 진행되는 만큼 참가자들의 질문에 즉각적으로 답변해야하는 점에서 지금까지와는 또 다른 난이도의 도전이었다.

덴마크 아이섹 멤버들을 대상으로 첫 라이프디자인 워크숍을 했고 이어서는 스타트업 커뮤니티, SAP 등 단체와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할 수 있었다. 그렇게 총 4번의 워크숍을 하게 되었는데 특히 마지막 워크숍은 출국 바로 전 날 진행되었다. 길거리를 걸으면서도 3시간 분량의 워크숍을 수업자료(ppt)가 없이도 머릿속으로

상상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영어 대본을 암기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진행할 용기가 생겼다. 매 워크숍이 많은 실패들을 발견하는 시간이었지만, 그렇게 발견한 실패를 어떻게 다음번에 개선해볼 수 있을까 고민하며 발전해갔던 경험이었다.



라이프디자인 워크숍 사진

이전까지는 하고 싶은 일을 경험해보고 그 과정에서 많은 일을 할 수 있게 되어 자신감을 쌓아가며 성장해왔다면 외국인 대상 워크숍의 도전은 나의 Why인 ‘외국인들에게 필요한 라이프디자인, 진로 교육은 무엇일까?’의 강력한 동기로 나의 능력을 뛰어넘는 난이도의 일을 실제로 되게 하기 위해 노력했던 시간이었다. 정말로 간절하다면 나의 힘과 역량으로 해낼 수 있는지의 여부는 중요하지 않았다. 내가 꿈꾸는 일이나 목표를 노력하여 되게 만드는 것임을 깨달았다.

내가 속한 공동체에 배움을 나누다.

제5회 학생성공스토리 “나의 대학생활을 디자인하다” 연사자가 되다.

교·내외 및 해외에서 대학생에게 주어지는 다양한 기회를 찾고 참여하는 과정에서 깨닫게 된 꿀팁과 정보를 평소에도 주변 후배나 친구들에게 공유하려고 꾸준히 노력해왔다. 그런데 정말 감사하게도 ‘나의 대학생활을 디자인하다’라는 주제로 특강의 기회가 주어져서 더 많은 우리 학교 학생들에게 활동 관련 정보 및 나의

이야기를 공유할 수 있었다. 집중해서 듣고 질문하는 학생들을 보면서 나의 삶의 경험이 타인의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진심으로 기뻐다. 특강 자료 및 교내활동, 대외활동, 해외탐방, 교환학생의 꿀팁들을 열심히 정리한 파일은 학생 성공센터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니 필요한 친구들은 꼭!! 참고하길 바란다.(특강 영상은 학교 유튜브에 올라가있다.) 나답게 한걸음씩 걸으며 만들어갔던 길에서 느끼고 배웠던 것을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며 도움이 될 수 있어서 정말 뿌듯했던 경험이었다. 앞으로도 이렇게 ‘Arise, 나로서 온전히 서기 위해 질문하고 묻고’ & ‘Shine, 그 과정에서의 배움을 주위에 나누며’ 나아가고 싶다.



학생성공스토리 현장 사진

내가 생각하는 ‘학생성공’이란?

스스로 생각하는 좋은 삶이 무엇인지 정의 내린 후, 그 삶을 원하는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직접 찾아가는 것

학생성공을 실천하는 과정을 혼자가 아닌 함께의 자세로 임하는것. 필요할때는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고 내가 속한 공동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것

실패를 성공의 반대말로 여기기보다 그 다음 실행에 깨달음을 주는 요소로 생각하여 더 나은 실행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가는 것

스스로 구하는 배우의 즐거움



이은정(16학번, 문헌정보학과)

당신은 무엇을 배우고 싶습니까?

성균관대학교는 지금에야 굉장히 사랑하고 자부심을 가지는 모교이지만 입학 초기에는 꽤 부담스러웠다. 전국에서 공부를 잘 한다는 친구들이 입학한 곳이었고 꿈이 확고한 친구, 한국에서만 공부했지만 영어를 정말 잘하는 친구, 한 번 들으면 다 이해하는 친구들이 있어 편치만은 않았다. 그러던 내가 지금은 학생 성공을 감히 논하게 되었고 어디 내놓기 부끄러운 나의 이야기를 누군가가 필요로 한다니 쑥스러운 마음과 얼떨떨한 기분이 교차하곤 한다. 성균관대에서 아무것도 없던 내가 나의 콤플렉스를 마주하고 일어서기까지의 짧지만 긴 이야기를 담아보고자 하였다.

고등학생 때까지 많은 선생님들께서 중요한 부분, 시험에 나올 부분을 직접 강조하시면서 무엇을 공부해야 하는 지 알려주셨다. 그런데 어른이 되고 보니 무엇을 배우고 싶은 지 아는 것이 무엇보다 힘들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나도 지독하게 그 고민에 빠졌었다. 그렇다고 ‘진정으로’, ‘거창한’ 것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다. 단순하게는 집에서 지하철역까지 가는 새로운 길을 알고 싶거나, 욕실 청소를 할 때 더 좋은 음악을 찾아내고 싶을 수도 있고 학문적으

로는 새로운 과목을, 기술을 배우고 싶을 수 있다. 다만 스스로가 그 배움에 찾아나설 때 곱절로 즐겁고 의미 있는 배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그리고 찾았다면 시작하자. 포기는 언제든지 할 수 있으니까 시작을 막는 콤플렉스를 마주하고 주변에 질문을 하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울한 방학

첫 학기 16주는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이 난다. 궁금했던 여러 교양 수업을 들을 수 있었고 논리적이고 학술적인 글쓰기가 배우고 싶던 내게는 학교 수업들이 정말 즐거웠다. 16학점, 8과목을 수강하고, 봉사활동을 하며 친구들을 만나니 4개월이 숨 돌릴 틈 없이 지나갈 정도로 바빴으나 행복했다. 그런데 첫 방학은 정말 재미없었다. 1학년 때 처음 방학을 맞는 날, 학술적 글쓰기 수업의 박정하 교수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있다.

“대학생의 시간은 12달이 아니라 8달과 4달로 나뉜다. 학교에서 배울 수 있는 시간은 8개월이 끝이다. 나머지 4개월은 스스로 배우고 느끼고 채워나가야 한다.”

솔직히 이 말씀을 들을 때는 별 감흥이 없었다. 나는 원래 잔소리 없이도 할 일을 찾아서 하는 착한 딸, 착한 학생으로 살아온 지라 그 말씀이 갖는 의미가 다가오지 않았다. 그렇게 시작한 60일의 긴 방학이 설레기도 했다. 고3 때에도 재수를 할 때에도 2월 중순에야 합격 소식을 듣고 바로 입학을 해서 첫 방학이 그렇게 신이 날 수가 없었다. 방학 첫 날에는 헬스장에 갔다. 그리고 저녁에는 보고 싶던 드라마를 보고 가족들과 거실 바닥에 누워 ‘할 일 없는 날의 여유’를 만끽했다.

그렇게 3일을 지냈더니 좀이 쑤셨다. 다른 친구들 소식을 들으니 유럽 여행을 떠나거나 자격증을 따기 위해 학원에 갔다고 했다. 나는 그동안 하고 싶은 운동을 하면서 헬스장에서 시간 보내는 게 다였고 여행도 준비과정이 귀찮아서 비행기 표도 쳐다보지 못했다. 학교 친구들은 방학이 되니 연락도 자연스레 끊기고 서

울로 이사 온 나는 같은 동네 친구도 없었다. 그리고 나는 결정적으로 하고 싶은 게 없었다. 대학생은 방학에 배낭여행을 가고 많은 활동을 할 줄 알았는데 방학에 나는 미아가 된 기분이었다 그나마 익숙한 시험이었던 토익은 입학하자마자 목표 점수를 넘었고 무엇을 해야 할지 아무 것도 몰라서 필수로 따라 하는 자격증이 뭐가 있는 지도 사실 잘 몰랐다. (그래서인지 지금도 컴퓨터 자격증이나 한국사 자격증도 없다.) 한참 남은 방학 동안 뭘 해야 할 지 몰라 그냥 무작정 광화문 교보문고에 가서 책이라도 읽어볼까 하다가 무슨 책을 읽어야 할지도 모르겠어서 점원에게 ‘아.....제가.....’라며 책을 추천해 달라는 말을 마무리도 못하고 도망치듯 화장실에 가 엉엉 울었던 기억이 있다. 학점도 잘 받고 어디서든 예뻐를 받았지만 그와는 별개로 나는 내 시간을 내가 주인이 되어 써본 적이 없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누군가 내게 암묵적으로 압박하는 목표만을 따랐으니 ‘자기주도’를 꽤 ‘수동’적으로 해온 셈이다. 온전한 내 시간을 활용하는 데 계획을 세울 방법을 전혀 몰랐던 것을 그제야 발견한 것이었다. 우선 겁이 너무 많고 생각이 너무 많았다. 여행을 가자니 테러가 무서웠고 친구들과 시간을 맞추기도 어려웠으며, 자격증을 공부하기엔 당시 내게 매력적인 자격증이 없었다. 이 자격증을 따는 데 어느 정도의 노력이 필요하고 만약 떨어지면 어떤 기회비용이 있는지 등을 계산하다 보니 “나는 무엇을 배우고 싶은가?”에 대답을 결코 할 수도 계획도 세울 수 없었다. 교수님께서 차라리 방학 숙제를 내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었다. 그 방학은 아직도 우울하고 많이 울었던 방학으로 기억에 남는다. 그런데 쓸데없는 자존심에 누구에게도 도와달라는 말을 하지 못했다. 가족들만 발을 동동 구르며 그들도 처음 보는 기가 죽은 나를 어찌 할 줄 몰라 그저 내가 좋아하는 운동을 함께 해주었다. 그리고 방학 막바지까지 2학기를 위해서 체력이나 길러보자고 등산, 러닝, 헬스, 스피닝 등 기회가 되면 땀을 흘릴 수 있게 운동만 했던 듯싶다. 주말에는 북한산 둘레길을 걸으며 우선 서울에 대해 알아갔다. 둘레길을 걸으며 부모님께서 살아오신 인생에 대해서도 더 깊이 들을 수 있었고 처음 가보는 동네의 전통 시장도 구경하고 엄마아빠가 데이트했던 곳도 둘러봤다. 도심을 지날 때면 기업, 상점, 식당, 국가기관, 문화유적들을 살펴보고 세상에 대해 알아가기 시작했다. 평일에

는 혼자 운동을 주로 했다. 그래도 운동을 할 때는 잡생각이 안 들어서 재밌게 했다. 그리고 방학이 끝났다. 내가 했던 거라고는 헬스장 52일 출석과 북한산 둘레길 절반을 걸었다는 것 뿐이었다.

그런데 그게 시작이었다.

확신이 생겼다. 그리고 좀이 쑤셨다. 이제 내가 살고 있는 동네에 대해서도, 내가 살아가는 나라, 내가 배워야 할 것들을 찾아보며 점점 더 조감도를 그릴 수 있겠다는 확신이 섰다. 나는 성장에 목말랐다. 그리고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참 많은 것을 신청했다. 중국인 유학생 버디활동과 여러 설명회에 참석하며 나에게 영감이 되는 것을 찾아 다녔다.

문헌정보학과 새내기

성균관대학교에 인문과학계열로 입학한 지라 1학년 때 나는 전공이 없는 학생이었다. 그리고 꽤 많은 학생들이 그러하듯 처음 계획했던 전공에 진입한 것은 아니다. 중국어 공부를 꽤 오래했기 때문에 당연히 중어중문학과에 진입할 계획이었으나 전혀 예상치 못하게 컴퓨터사고와 SW코딩 수업을 들으면서 코딩과 데이터 처리에 눈을 떴다. 컴퓨터가 일을 처리하는 논리는 꽤 단순하고 명료했다. ‘그냥’, ‘적당히’라는 조건이 아니라 논리적으로 합당할 때만 일이 한 단계씩 처리되는 조건은 내게 코딩에 매력적이었다. 고등학생 때까지도 수학을 좋아했던 점이 작용했는지 중문학도가 되겠다는 처음 계획은 점점 기억에서 잊혀졌다. 1년 내내 코딩 수업을 배우고 빅 데이터에 자연스럽게 관심을 가지면서 문헌정보학과에 전공진입을 하게 되었다.

대학을 입학했을 때 계획이 틀어지며 진로에 대한 계획도 다시 짜야하는 상황이 되어 혼란스러운 머리와는 달리 정보학개론, 정보행위론, 장서구성론 등 전공 기초 수업을 들을 때 마음은 즐거웠다. 우선 내용이 흥미로웠다.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던 아카이빙, 도큐멘테이션, 이용자 관리, 참고서비스 기획하는 데 모두 빅

데이터가 활용되는 것이 재밌었다. 그리고 도서관이 정보 센터 역할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됐다. 도서관은 과거에 모든 지식과 정보가 모이고 축적되며 관리되는 중심지였다. 중심지였을 뿐 아니라 학자, 법관, 정치 관료들에게 의사결정에 중요한 가장 고급, 최신의 자료를 찾아주고 다량의 정보 중 양질의 정보를 선별하는 역할까지 도맡았다. 그리고 지금은 그 역할이 웹서비스까지 확장되었으며 각종 빅 데이터 분석 알고리즘에 기반이 되고 있으며 데이터, 지식, 정보, 지혜 등 다양한 차원으로 정보를 공부하는 것이 재밌었고 데이터 분석 분야를 계속 공부하고 일하고 싶어졌다. 더불어 통계와 연계된 빅 데이터를 전문적으로 공부하고 싶어졌다. 그리고 교환학생 공지와 문헌정보 전공생과 데이터사이언스 연계전공생을 위한 “R부트캠프” 공고문을 만났다. 내 인생에 거대한 터닝 포인트가 되었던.

데이터 분석 - 내가 짠 코드 몇 줄이 세상을 읽어낸다

3학기가 끝나고 여름방학에 시작한 R 부트캠프는 정말 학업 강도가 높았다. 1학기 전공수업 3학점에 맞먹는 강의시간과 프로젝트 과제는 결코 2주에 끝낼 수 있는 게 아니었다. 통계학과 교수님께서 통계의 베이스를 1시간 반 설명하시고 1시간 반은 R을 이용한 통계 분석 기술을 가르쳐 주셨다. 두꺼운 기본서에 있는 내용은 책장을 넘길수록 재밌었다. 아무래도 한정된 시간에 통계 기초 이론과 분석 프로그래밍을 다 가르쳐주시기는 불가능하여 진도를 뛰어넘으시면 꼭 집에 가서 다시 공부를 하고는 했다. 문헌정보학 수업은 논리와 암기에 의해 술술 넘어갔었는데 이와 달리 통계 내용은 수식 한 줄, 한 줄이 어려웠고 완전히 이해가 되어야 속이 풀리는 성격 탓에 항상 유튜브에 검색하고 구글링을 하면서 공부를 했다. 그게 재밌었다. 어려운데 도전할 만 했고 수와 논리로 풀어가야 하는 이야기가 흥미로웠다. 친구들은 변태 같다고 했다. 그리고 그 방학에 나는 통계학 복수전공을 겁도 없이 신청했다.

그리고 팀 프로젝트가 시작됐다.

우리 팀 주제는 “경쟁 프랜차이즈 업체는 정말 가깝게 위치해있는가?”였다. 이

궁금증은 순전히 나의 최악의 방학에서 시작한다. 부모님과 도심 나들이를 나설 때면 커피를 좋아하시는 부모님을 따라 스타벅스를 종종 갔는데 항상 건너편에 이디야가 있는 것이었다. 나의 착각인가 싶어 팀원들에게 이를 통계적으로 검증해보지 않겠느냐 제안을 했고 우리는 커피업계의 스타벅스와 이디야, H&B스토어의 올리브영과 왓슨스(현.랄라블라), 편의점 CU와 GS25에 대상을 한정하여 세 가지 업계의 업체 입점 배경을 살펴보기로 하였다. 가깝다는 말을 수치적으로 정의를 내려 가깝게 위치하였다는 1번 귀무가설을 살펴본 후 다중 회귀분석을 통해 어떤 요인에 의해 밀집도가 다뤄지는 지 검증하였다. 프로젝트를 하며 느낀 것은 먼저 데이터를 얻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다. 한 눈에 깔끔하게 보일 수 있도록 데이터를 수집하고 정리하는 일에 시간을 거의 다 썼다. R프로그램으로 읽을 수 있는 데이터 파일이 한정되어있기에 csv 또는 xls 로 파일을 정리하는 일이 지나고 나서야 진짜 분석을 할 수 있었다. 분석 결과, 실제로 경쟁 업체들은 가까이에 입점했고 밀집도는 특히 버스정류장, 지하철역에 가까울수록 증가했다. 즉 유동 인구가 많을수록 업체들은 서로 가까이에 있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느낀 것은 어떤 분석 방법을 쓰는지 현명하게 판단할 수 있는 판단력이 중요하다는 것이었다. 데이터 분석 기술은 사실 구글에 다 있으니 어떤 기법이 주어진 데이터와 가설을 검증하는 데 적합한지 결정하는 것이 중요했다. 따라서 올바른 판단할 수 있도록 전체 프로젝트 흐름과 데이터의 기반 지식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분석을 의뢰한 상대방에게 적절히 전달하고 이해시킬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능력의 중요성을 깨달았다. 그리고 이 프로젝트로 캠프에서 1위를 하고 장학금을 받았다. 데이터를 정리하는 방식이나 검증 방식은 지금 보면 꽤 귀엽고 어리숙하지만 문제를 인식하고 데이터 분석으로 풀어가려는 노력은 지금의 나에게도 꽤 고무적이다.

데이터 분석을 시작한 첫 걸음이었다.

통계에 관련한 자료들은 영어였고 기본적인 수학을 잘 알아야만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정보들이었다. 이전 방학 때 영어를 공부 한 것이 내가 이제 하고 싶은 일을 하는 데 정말 큰 도움이 되었다. 인생은 우연의 연속처럼 계획을 세운 것대로 절대 진행되지 않는 데도 불구하고 전혀 예상치 못하게 내가 쌓아온 것들 위에

차곡차곡 쌓이는 것을 보았다. 그냥 뭐라도 하자 싶어서 했던 영어 공부가 오히려 통계 공부를 시작하는 데 너무나 큰 도움이 되었던 것처럼 말이다. 그리고 5학기에 교환학생도 떠났다. 지금 글을 쓰는 것만으로도 너무나도 설레고 행복한 덴마크로.

공부가 재밌어졌다

덴마크에 갔다. 북유럽 교육이 뭐길래 대체 모든 교육 기관에서 북유럽을 모델로 삼는 지 궁금했다. 덴마크 코펜하겐 대학교(이하 KU)에서는 Information Science의 석사 수업을 수강했다. 그 곳에서 만난 친구들은 다 자기 나라에서 소위 날렸다는 친구들이었다. 그 중 나랑 같은 기숙사를 썼던 줄리우스는 특히 머리가 좋았다. 석사를 시작하고 공부를 제대로 한 적이 없는 데 학점 따기 어려운 KU에서 항상 만점을 받았다고 한다. 28페이지 분량의 파이널 레포트를 작성하는 데 10시간도 안 걸렸다고 한다. 그래서 옆에 붙잡고 물어봤다. 우선 나는 학부생이고 전공 공부를 시작한 지 겨우 1년이었으며 논문을 검색하는 법도 모른다는 스스로에 대한 인식에서 출발했다. 줄리우스는 글을 참 멋있게 썼는데 그의 문장에는 수많은 레퍼런스들이 뒷받침하고 있었고 나는 그렇게 레퍼런스가 탄탄한 글을 쓰고 싶어 도와달라고 했다. 그는 성심 성의껏 도와줬다. 후에 물어보니 내가 부탁할 때 그가 잘하는 것을 요청했기 때문에 스스로도 기분이 좋고 내 리액션을 보면서 스스로도 즐거웠다고 한다. 어느 정도 레퍼런스 검색하는 법과 글 쓰는 법을 그에게 배우고 교수님을 찾아가 추가 레퍼런스를 요청했다. 그는 그 자리에서 3일 전에 출간 된 저널을 말씀하였다.

그때였다. 공부할 맛이 났다. 내가 궁금한 것, 배우고 싶은 것을 들고 가면 계속 힌트를 주셨다.(절대 답은 주시지 않는다). 교수님은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여유로웠으며 내가 궁금증을 어떻게 설명하고 풀어내는 지 지켜보시며 즐겁게 기다려 주셨다. 매 수업 전에는 논문 100장 이상의 예습을 요구하시기도 했다. 그래서 나는 기숙사에서 공부를 제일 많이 하고, 많이 노는, 잠 안자는 한국 여자애로

불렀다. 다 읽어 갔기 때문에 잠 잘 시간이 없었다. 특히 금요일 1교시 수업이었기 때문에 (KU 1교시는 8시에 시작한다) 밤을 새는 것이 부지기수였다. 수업을 위해 공부할 때 느낀 것은 내가 공부했던 영어는 프리토킹에서나 쓰였지 학술 논문을 읽을 때에는 눈 씻고 찾아봐도 아는 단어가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매일 사전을 켜놓고 공부하고 CNN을 들으면서 받아쓰기 연습을 하고 또 따라 말했다. 독을 품고 공부를 했다. 평균 5시간을 자면서 2달을 그렇게 했더니 논문이 술술 읽히고 외국인들 사이에서 대화를 이끌어가기 시작했다. 매 달 있었던 팀 워크숍 발표도 점점 나아졌다. 예상치 못한 질문이 들어와도 침착히 대응하는 법을 배웠고 우간다, 독일, 폴란드, 중국 등 다양한 친구들과 발표를 준비하면서 더더욱 정보학에 흥미를 느꼈다. 이 때 수강했던 과목은 ‘공간과 이용자의 상호작용’ 쪽으로 해석이 되는데 온/오프라인 공간 디자인이 인간의 정보 행위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 가를 다루었다. 이 내용은 후에 프로젝트 기획 및 온라인에서의 이용자를 분류하고 그들과의 상호작용을 공부하는 데 발판이 되었다.

분명히 학습량은 훨씬 많은 데 학업 스트레스는 없었다. 우선 수업 레포트 과제에는 정해진 주제가 없었다. 수업과 관련된 어느 것이든 용인된다. 다만 1000페이지의 레퍼런스를 확보해야 했다. 나는 내가 살고 있던 기숙사에 특히 교환학생이 많은 데 계단식 아파트형인데도 불구하고 복도형으로 한 층이 모두 연결되는 것이 흥미로웠다. 그리고 이로써 생기는 우연찮은 커뮤니케이션, 정보 공유에 대해 탐구하고자 하였고 생각보다 좋은 성적을 받았다. 이처럼 내가 나서서 질문하고 또 배움을 구한다는 점에서 공부를 즐겁게 할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언제든지 질문을 할 수 있다는 믿는 구석이 있었다. 교수님들이 학생들에게 굉장히 열려있었고 그 누구도 이상한 질문을 했다고 해서 타박하는 문화가 없었다. (부작용도 있다. 집중 안하고 당당하게 이미 지나간 내용을 다시 설명해달라는 애들도 많긴 하다.) 반 친구들 누구를 붙잡든 흔쾌히 대답하고 함께 고민해 주는 문화가 있었다. 그 동안은 똑똑한 사람만 대학에서 환대 받는 줄 알았다. 한국에서는 나를 우등생으로 치장하느라 바빴다. 내가 궁금했던 과목을 듣는 것 보다는 학점을 잘 받을 수 있는 이른바 ‘꿀강’을 찾아 들었었다. 하지만 오히려 먼저 질문하

고 열정을 가지고 눈에 불을 켜고 다닐 때 더 많은 친구가 생겼고 다른 친구들도 내게 또 다른 질문을 던지며 함께 공부한다는 학습 공동체를 몸소 체험하였다.

마지막으로 내가 물어보지 않으면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내가 들었던 수업에서는 그 누구도 “이 부분이 중요하다, 기억해라.”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오히려 나는 제발 교수님이 수업 중에 중요하다고 발표치고 밑줄 그으라고 말씀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스토리텔링으로 물 흐르듯 수업이 지나가니 중요한 것이 따로 없었고 다들 각자 페이퍼 주제에 관련되도록 질문을 준비해와서 배워가는 것을 보았다. 스스로 준비하고 질문해야만 배울 수 있



덴마크 속 한국인 인터뷰 사진

는 곳이었다. 수업에서는 교수님 뿐 아니라 친구들도 내게 기꺼이 스승이 되어 주었다. 줄리우스 이 외에도 리브, 안나, 한나는 밤늦게도 나의 수많은 질문에 대답해주고 당황스러운 질문에도 “That’s a good question.”이라며 오른쪽 눈썹을 싹룩거리긴 했으나 곧 잘 대답해주었다. 이 때 생긴 질문하는 습관은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다. 이와 같은 이야기는 덴마크 속 한국인이라는 페이스북 페이지의 인터뷰에서도 함께 나눈 적이 있다.

문과생이라는 콤플렉스를 마주하다

그리고 다시 서울에 왔다.

정신없이 통계 공부를 하며 순식간에 학기가 지나갔다. 그리고 그 동안 배운 코딩과 데이터 분석을 직접 활용하기에는 내가 데이터 자체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 덴마크 교환학생시절에 유럽을 여행하며 교통 데이터 분석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데 교통이용자, 자율주행 자동차, 휠체어, 각종 공유 모

빌리티 등 너무나 많은 지식이 필요했고 이와 같은 정보를 소화하기에 기초 지식이 매우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 예를 들면 자율주행 자동차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이해하기 위해 초음파 센서의 특징을 이해하는 것부터 막혔다. 이러한 첨단 과학 기술에 대해 알아야 하는 것이 많았는데 내 옆에는 공대 학우가 한 명도 없었고 나는 이런 신기술을 접할 수업도 대학에 와서 한 번 배운 적이 없었다. “문과생이라서 그런가? 나는 잘 몰라.”라는 말로 스스로 변명하며 뒷걸음치다가 덴마크에서 쓴 일기를 읽게 됐다. ‘다시는 몰라도 된다고 위안하지 말자. 모르면 질문하자.’ 라고 써있었다.

그런데 참 난감했던 것이 하나 있다. 질문할 곳이 없었다. 구글링, 유튜브를 찾아봐도 무엇을 검색해야하는 지조차 감이 잡히지 않던 찰나(내가 무엇을 모르는지는 아는 데 적절한 검색어를 모르던 때)에 우리 학교 비교과 프로그램의 꽃 C-school을 알게 됐다.

꾸준히 코딩을 공부했던 것을 기반으로 실제로 문제를 해결할 기회를 찾고 싶어 학과 공지사항을 살펴보며 발견했다. 그리고 마침 싱가포르 난양공대에서 3D printing을 배우는 워크샵, 미국으로 탐방가는 D-school을 모집하고 있었고 그 외에도 다양한 스터디 모임을 지원해주는 Co-Deep learning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이미 진행되고 있었다. 명륜, 율전 캠퍼스에서 함께 모집하기 때문에 공대생도 만날 수 있고 일단 한 번도 실제로 본적이 없던 3D printing을 배울 수 있다는 것을 듣고 곧장 신청했다. 운이 좋게 Universal Design, Sustainability와 같은 제조업 트렌드를 함께 배웠고 팀원들과 함께 우리만의 자동차를 직접 디자인하고 3D printing으로 프로토타입을 만들며 그렇게 내가 배우고 싶던 자율주행 자동차, 커넥티드 카를 배웠다. 우리는 교통약자를 위한 1인 자율주행 자동차를 기획하였고 이 자동차가 수요자가 없을 때에는 유통 서비스의 일환으로 사용되어 다양한 범주에서 사업을 진행하게 하는 자동차 트렌드를 캐치하도록 하였다. 난양공대에서 배운 내용과 공대 학우들에게 들은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미래 교통시장은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었고 수많은 하드웨어가 소프트웨어로 대체되고 있었다.

세상이 바뀌는 모습을 이제야 눈에 담게 되었다. 데이터 분석도 그 안에서 수백 가지 컨셉을 가지고 성장하고 있었다. 특별한 계획이 있던 것은 아니었지만 은연 중에 꿈꾸었던 4차 산업시대의 데이터 분석가로 점점 다가갈 수 있었다.(이 프로그램은 다음 달 성과 공유회에서 인기상을 수상하며 마무리 됐다.)



난양공대 3D printing workshop 수료한 모습

그리고 그 곳에서 나의 팀원들을 만났다. 글로벌 경영학과, 기계공학과, 전자전 기공학을 공부하는 학우들과 함께 자율주행 자동차와 Universal Design의 결합으로 우리가 교통 약자들의 교통권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다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2019년 1월 맥주 캔을 따면서 시작되었다. 내가 배우고 싶고 공부하고 싶어서 열심히 살았던 것이 나만의 즐거움을 넘어서 내가 속한 사회, 공동체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체감하였다. 교통약자의 교통권 보장을 위한 미래 모빌리티 기획 프로젝트, 전국 대학생 자율주행 자동차 융합 설계 경진 대회, 산악사고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한 산악사고 감소를 위한 전국 공공 데이터 창업 경진대회, 데이터 분석을 통해 화성시 버스 노선도 개편을 제안하는 활동은 모빌리티 및 스포츠 데이터 분석가라는 나의 목표 뿐 아니라 나의 배움으로 말미암아 더 살기 좋은 사회로 성장하는 데 작게나마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 가슴을 뜨겁게 했다.



사진① 성균 글로벌 창조적 챌린저로 활동하며 교통약자의 교통권 증진을 위한 미래 모빌리티를 기획하여 최우수상 수상

사진② 제주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 경진대회에서 산악사고DB구축과 등산사고 알리미 서비스 기획안으로 대상 수상

사진③ LISTAT 스터디모임에서 화성시 버스노선 개편을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모습



제주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 경진대회 대상 수상 팀 LISTAT

423호 | 기사입력 2019.07.14 | 취재 현자수 기자 | 편집 민에서 기자

이름만 들어도 설레는 섬 제주도. 방학을 맞아 제주도를 찾는 학우들도 많을 것이다. 최근에는 혼영, 혼밤 등에 이어 '혼행'이 대세로 떠오르며 혼자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도 많다. 그러나 혼자 제주도를 여행하다 보면 안전, 교통 등 다양한 문제에 직면하기도 한다. 혼자 제주도를 여행하는 사람들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플 '제주 넘기'의 아이디어를 기획해 제주도에서 주최한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한 팀이 있다. 바로 우리 학교 문헌정보학과에서 통계학과를 복수전공하는 학생들로 구성된 팀 'LISTAT'이다. 'LISTAT'의 이은정(문헌정보 16), 박수정(문헌정보 16), 홍서영(문헌정보 16), 서지호(문헌정보 16), 이민영(문헌정보 17)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특히 이렇게 활동을 진행하기 위해 스펙업(대내외 활동), 피플앤잡, 링크드인(외투기업 취업), 독취사(국내기업 취업) 등 정말 많은 학생 및 구직 커뮤니티에서 소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는 정보가 여기 한 군데에서는 있을 것이다. 지금 당장 검색해보길 바란다.

이러한 일은 혼자서는 결코 하지 못 했을 것이다. 내가 혼자서 끙끙거리며 고민하는 것보다 팀원들이 서로 가진 지식을 공유하고 함께 다독였기에 어떻게든 끝까지 버틸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또한, 좋은 동료는 내가 그들을 찾아가야만 만날 수 있다. 많은 친구들이 내게 물어봤다. 어디에 가야하냐고. 우리는 성균관대 대학생이다. 학생들이 모여서 의견을 서로 나눌 수 있는 학교를 십분 활용하자. 우리 학교에는 정말 많은 프로그램과 센터가 있다. 앞서 말한 C-school, 성균공부방, 다양한 동아리, 학회에서 주최하는 특강과 스피치, 학과에서 주최하는 선배님과의 만남, 학생인재개발팀, 학생 카운슬러 등 그리고도 답답하면 교수님을 찾아가보자. 사실 덴마크에 가기 전까지 한국 학교에서는 학생을 중히 여기지 않는다는 선입견이 있었는데 여기도 똑같았다. 입을 열기 시작하니 어떤 질문을 할지 눈을 반짝이며 기다려 주셨다. 교수님께 이러한 것을 공부하고 싶은데 참 막막하다고 솔직히 털어놓는 데에서 전혀 예상치 못한 시작이 생겼다. 사교성이 없더라도 시작할 수 있다. 내가 처음 참석했던 과 행사에서 나는 맨 뒷자리 구석에 앉아 서로 친해지는 친구들을 구경하였고 머쓱한 맘에 밥을 코로 먹었는지 입으로 먹었는지도 모를 만큼 쑥스러웠다. 그래도 그런 자리가 계속 반복되니 나도 몰랐던 나를 만날 수 있었고 나만의 대화법도 하나씩 찾아갈 수 있었다. 첫 여름방학에 하염없이 울기만 했던 나도 했는데 벌써 이 글을 찾아 읽은 여러분도 할 수 있다. 한 번만 가보면 된다. 그러면 누군가 대답해줄 것이다. 조금만 부딪혀보면 꽤 많은 곳에서 또 대답을 해줄 것이다.

그리고 또 다시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고 실력을 쌓으면 데이터 분석가가 곧바로 되는 줄 알

았으나 현실은 막막했다. 취업의 문은 굉장히 좁았고 데이터 분석가라는 직업은 아직 많은 기업에서 특정 직무로 마련하고 있지 않았다. 본 직무를 채용하는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석사 이상의 학위를 요구하기도 하였다. 취업 생각이 대기업 공채가 마무리 된 9월의 추석 즈음에야 일단 자기소개서나 써보자는 생각에 여러 기업에 지원했는데 예상치 못한 인적성 평가를 다섯 번이나 치러야 했다.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응시한 것이 원인 이었는지 줄지은 낙방 소식에 기분만 나빴고 내가 잘 할 수 있는 것, 나만 할 수 있는 일을 생각하다가 다시 내가 제일 재밌게 했던 첨단 기술, 신기술과 관련된 데이터 분석 업무에 눈을 돌리게 됐다. 그리고 아마존웹서비스(AWS)에서 2020년 1월부터 인턴 활동을 하게 되었다. 데이터 분석이라는 플랫폼 기술과 더불어 자율주행 차, 커넥티드카, 클라우드 산업, 바이오 등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았던 시간들이 클라우드 시장 및 고객 분석을 하는 데 매우 도움이 되었던 것이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이야기에 하고 싶은 말은 단 한가지이다.

당신은 무엇을 배우고 싶은가? 그러면 무슨 질문을 하고 싶은가?

스스로 질문하고 대답하는 것만이 나를 만나고 만들어가는 유일한 방법이다. 그 질문을 찾기 위해 움직여보자. 그 이후에는 여러 우연과 필연이 만나 결국 길을 만날 것이다.

내가 생각하는 ‘학생 성공’이란?

학생으로 추구할 수 있는 성공은 우선 학생이라는 자리에서 출발해야한다고 생각한다. 학생은 모름지기 배우고 익히며 새로운 것을 고안해낼 수 있어야 한다. 다만, 그 안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을 배울지 계획하고 고민하는 자세라고 생각한다. 스스로 구하는 배움의 즐거움을 진정으로 느끼고 이에 힘쓰는 것이 아닐까? 이 배움은 개인의 즐거움을 넘어 이 사회에 이바지한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 있을 것이다.

주체성을 갖고 도전하는 삶, 작은 것이라도 나눌 줄 아는 삶



박소정(18학번, 글로벌경영학과)

“위 학생은 창의적 도전정신을 바탕으로 우리 대학의 건학이념인 修己治人을 실천한 학생성공의 표상이 되었기에 2019 President's List로 선정합니다.”

아직 무언가 눈에 띄게 이루어낸 성과도 없고, 비상한 머리와 능력을 가진 것도 아닌 내가 이러한 영광스러운 명단에 오르게 되었다는 사실이 여전히 믿기지 않는다. 그러나 수기를 쓰는 일도 내가 깨닫고 배운 경험을 나누는 ‘수기치인’의 실천이라 생각하기에, 기쁘고 감사한 마음을 담아 써보려고 한다. 나의 이야기는 앞으로 교내 학우들을 비롯해 많은 사람들이 읽게 될 것이다. 그 중 단 한명의 독자라도 나의 이야기를 통해 희망과 용기를 얻게 된다면 나 역시 뿌듯할 것 같다. 지금부터 시작될 나의 이야기는 진정으로 나의 가치관과 삶의 방향에 대해 고민하며 도전을 통해 성장해온 대학생활 근 2년간의 모습과, 도움 받은 곳에서 다시 도움을 베푸는 ‘나눔의 실천’의 모습이 담겨 있다.

신선한 충격이 패기 넘치는 다짐으로

고등학교 때까지 나는 평범한 ‘대한민국 청소년’ 그 자체였다. 내 주변의 사람

들이 하라는 대로 살아왔고, 주위 친구들과도 크게 다를 바가 없었다. 당연히 ‘나는 누구인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다. 다시 말해, ‘주체성’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삶을 살아온 것이다. 오로지 ‘나’에 게만 집중하고 ‘나’라는 사람에 대해 고민해본 순간이 거의 없었다. 그러던 중에, 내 삶이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처음으로 느끼게 된 때가 있었다. 그것은 고등학교 2학년 때 참가했던 ‘2016 세계청소년 꿈과 재능 멘토스쿨’에서였다. 5박6일 동안 내가 처한 환경은 정말 큰 충격이었다. 그토록 다양한 개성을 가진 친구들과 함께 하는 시간은 처음이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프랑스, 중국, 미국, 아르헨티나 등 세계 각국에서 온 친구들이 모였고, 그들은 무용, 뮤지컬, 미술, 영상 분야 등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각기 다른 재능과 꿈을 가진 열정적인 또래들이었다.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과 한 곳에서 며칠간을 함께 생활하고 얘기를 나눈 적은 처음 겪는 일이었다. 캠프기간 동안 이들과 함께 지내면서, ‘그 동안의 나’는 더 넓은 세상을 쳐다보지 못하고 있는 ‘우물 안의 개구리’에 불과하였다는 사실이 크게 느껴졌다.



2016 세계청소년 꿈과 재능 멘토스쿨 참여 당시의 단체 사진

그곳에서 또래 친구들을 하나둘 알아갈수록 내 자신은 점점 초라해지는 기분이었다. 어렸을 때부터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찾아 행복하게 살아온 친구를 보면 부러웠다. 낯선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노래와 연기를 뽐내는 뮤지컬 주인공 친구를 보면 너무 멋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그들과 달리 나 자신을 보면 정

말 할 말이 없었다. 내가 한 것이라곤 초등학교 때부터 학교와 학원을 오가며 남들이 다 하는 것들을 다름없이 해온 것, 중학교 내신 성적으로 외고에 진학한 것, 그 외고에서도 대학교만을 바라보고 끊임없이 경쟁, 경쟁, 경쟁을 해오며 살아온 것. 이게 다였다. 그래서 다른 친구들에게 ‘나’는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할 때 행복한지에 대해 말할 수가 없었고, ‘나’를 제대로 소개하지도 못하였다. 이 ‘꿈과 재능’ 캠프에 참가만 하면 5박6일 동안 꿈과 재능을 찾을 수 있을 줄 알았지만, 그것은 어리숙한 나의 무모한 바람일 뿐이었다.

이전까지의 나는 앞만 있는 줄 알았고 앞만 볼 줄 알았고, 늘 경쟁 속에서 살아왔었지만, 이 캠프에서 처음으로 옆도, 뒤도 보며 여러 곳을 둘러보는 기분이었다. 이전까지는 단장 옆으로 고개를 돌려도 나와 비슷한 생각과 행동을 하는 친구들밖에 없었지만, 캠프 기간 동안에는 나와 비슷한 친구를 찾기가 오히려 힘들었다. 그보다, 내가 평생 시도해 보지 못한, 나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다른 환경 속에서 다른 가치관과 신념을 가진 친구들로 가득했다. 이렇게 다양한 친구들과 몸을 부대끼며 한 곳에서 생활하고 얘기를 나누고 같은 활동을 하였다. 그리고 충격과 놀라움의 눈으로 그들을 지켜보면서, 나는 다짐했다.

“내 인생도 이렇게 다양한 모습들 중 하나일 텐데, 정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나’만의 인생을 한 번 만들어 가보자!”

이 다짐은 내 인생에 나만의 색깔을 입혀주었고, 나를 더 힘차게 앞으로 나아가도록 만들어 준 시작점이자 소중한 첫 출발점이 되어주었다.

주체성 갖고, 좋아하는 활동을 찾아 실천하는 삶

이 후, 나는 ‘나’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언제 가장 행복한지에 대해 고민했다. 그 결과, 사람을 좋아하는 나의 적성에 맞게, 사람을 만나고 사람을 대하는 활동을 하나씩 찾아 시작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찾아 한 첫 번째 활동은 성균관대학교에서 주최한 <지역사회

문제해결 Design Thinking 아이디어 챌린지)였다. 나와 비슷한 흥미와 의지를 가진 학우들을 만나 지역 사회에서 사람들이 겪는 문제점을 찾아 해결하는 프로젝트였다. 종로구 시민들의 삶에 대한 고민과 인터뷰를 통해 대중교통 이용객 중 휠체어 장애인의 불편에 공감하게 되었다. 그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휠체어 전용 개찰구 문을 개선하는 방안을 프로토타입으로 제작해보았다. 우리의 작은 아이디어가 누군가에게는 정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이에 큰 보람을 느꼈던 뜻깊은 시간이었다.



〈지역사회 문제해결 Design Thinking 아이디어 챌린지〉에서 휠체어 장애인을 위한 개찰구 문 개선 방안이 담긴 프로토타입을 들고 찍은 사진

사람을 만나고, 대하고, 위하는 활동에 흥미가 커졌다. 이후에는 〈청년 고용정책 서포터즈〉로서 주고객층인 ‘청년’의 입장을 공감, 분석하는 활동도 했었다. 나를 비롯한 내 주변 또래들도 포함이 되는, 이 시대 대한민국 청년들에 관해 고민해보는 시간 역시 즐거웠다. 그들의 관심사와 고민거리, 심리에 대해 알아보고 이를 활용하여 청년정책의 효과적인 홍보를 위한 방안을 생각해보았고, 이를 바탕으로 매달 유튜브 영상제작 및 오프라인 활동을 진행하였다. 이러한 과정은 사람들과 소통하고 좋은 정보를 함께 나누는 기쁨을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현재도 나는 사람을 만나고 있다. 한국가구박물관에서 한국인과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감동있는 투어를 제공하는 도슨트로 일하는 중이다. 다양한 국가와 도

시에서 방문하는 손님들을 맞이하고 그들에게 우리 문화의 가치를 알리는 보람을 느끼며 매주 투어를 진행하고 있다.

그 과정 속에서 마주친 한계

그러나 내가 원하는 대로 사람을 만나고 사람을 생각하고 사람을 위하는 활동들을 꾸준히 해오면서 나는 여러 번 한계를 느꼈다. ‘기술’이라는 커다란 벽이 계속 앞으로 나아가려던 나를 계속 가로막는 느낌이었다. 지역사회의 문제 해결을 통해 사람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일에 힘써보고 싶어서, 성균관대학교 C-school에서 개최한 <제 10회 융합기초프로젝트>에 참가한 적이 있다. 우리 팀은 여행객들과 외국인들을 위한 관광지 주변 음식점 이용 플랫폼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그런데 팀 내에 플랫폼을 구현하기 위한 코드를 짤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결국 오프라인 판넬로 대체할 수밖에 없었고, 기능에 대한 기발한 아이디어를 실현시켜 볼 수조차 없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머릿속으로 생각해낸 기능을 구현하거나 내 아이디어를 타인에게 설명하고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래밍 언어나 기술을 공부해야겠다는 점을 절실히 느꼈다.



제10회 융합기초프로젝트 참여 당시 아이디어 공유회 직후 팀 단체 사진

또한, 사람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참여했던 <와이파이 도시락 마케팅 공모전>에서 제품의 개선 방안을 고안해 보기도 하였다. 개선 아이디어 제시를 위해서는 먼저 소비자들의 이용 패턴과 불만사항을 수집하여 문제점을 파악해야 한다. 그러나 데이터 분석 기술을 전혀 모르던 나는 인터넷에 떠도는 수많은 소비자에 대한 정보들을 수집, 선별, 분류하는 과정에서 다시금 한계에 부딪혔다. 직접 설문 조사를 만들어 주변 지인들에게 설문 참여를 부탁하며 의견을 수집하였고, 표본의 대표성이 좋지 않은 설문 결과를 가지고 마케팅 전략 아이디어를 제시할 수밖에 없었다. 데이터 분석 기술의 부재는 다소 번거로운 절차를 야기하였고, 비효율성과 부정확성을 낳았다. 지금 되돌아보면, 제대로 배운 것도 할 줄 아는 것도 하나 없지만 그것에 대한 걱정이나 두려움 없이 공모전에 지원했던 것 같다. 대학교 1학년이었던 당시 나의 실력과 수준은, 공모전에 나가는 다수의 실력자들에 비해서는 정말 하염없이 부족하고 모자랐다. 수상은 고사하고 그것을 바라는 것조차 욕심이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그러면 어떠한가. 나는 결코 이 경험을 ‘헛수고’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이를 통해서, 나는 기술의 필요성을 누구보다 절실히 느낄 수 있었다. 당시 나는 소비자들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안내하고 개선하는 일에 힘쓰고 싶은 꿈이 있었다. 이 공모전 경험은 당시의 나로 하여금 ‘소비자들의 데이터를 분석하고 다루는 기술이 나의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해준 소중한 시간이었다.

과감히 도전하고 성장하는 삶

이와 같이 컴퓨터 프로그래밍 기술과 빅데이터 분석에 대한 공부의 필요성을 실감하고 공부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그것을 실현하는 단계도 역시나 쉽지 않았다. 전공분야도 아닌데다가 문과생의 처지로서 기술과 코딩을 배울 마땅한 루트를 찾기 힘들었기 때문이다. 선불리 연계전공이나 복수전공을 신청하기 이전에, 나는 먼저 입문자가 도전해볼 수 있는 작은 활동들부터 찾기 시작했다. 기초 지식이나 실력이 많이 부족했지만 그렇다고 가만히 있으면 아무런 발전도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부족한 실력에도 주눅 들거나 망설이지 않고 관련 활동

이라면 과감히 도전했었다. 이러한 용기와 당찬 태도가 지금까지 꾸준히 도전하고 나아가게 해주는 밑거름이 되었다고 믿는다.

우선, 대학에 진학한 후로는 조금 멀리 하고 지냈던 수학과 수식에 부딪혀보기 위하여 본교 대학혁신과공유센터에서 주최한 <C-School 인텐시브 프로그램 Math&Arts 3D 프린팅 수업>에 참여하였다. 기본적인 함수와 그래프 이론을 공부한 후, SageMathCell이라는 코딩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수식으로 원, 타원, 사각형, 곡선 등을 나타내어 좋아하는 캐릭터 모양을 직접 제작해보았고, 이를 3D프린터로 출력하는 활동을 해보았다. 이과수학이나 코딩에 있어서는 기본기조차 없었던 나로서는 수업 내용의 절반도 알아듣지 못했지만, 이 활동을 통해 코드를 눈에 조금이라도 익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충분히 의미 있는 활동이었다고 생각한다.

그 후에도, 데이터를 분석하고 다루는 <인포매틱스 캠프>에도 참가하고 싶었으나, contest 형식으로 진행되는 활동이었기에 훨씬 더 고민이 많이 되었다. ‘나 같은 초보자가 정말 해도 될까, 아무것도 못 알아들으면 어떡하지, 팀으로 진행되는 데 혹시나 팀원들에게 해가 되지는 않을까’ 등 정말 수많은 우려와 고민 속에 갈등하고 있었다. 그 때, 이전 3D 프린팅 활동 때 만났던 선생님께서 ‘그 수학활동처럼 잘 못 알아들어도 괜찮다, 뭐 하나라도 얻어 가는 게 있을 것이다, 시도 자체에 의미를 뒤보자’ 라고 말씀해주셨다. 선생님의 격려에 힘입어, 남들은 다 두려워하던 이 활동에 나는 과감히 지원할 수 있었다. 물론 지원서에 어떠한 경력사항이나 활동경험도 기재할 수 없었다. 그러나 내 눈에 더욱 크게 보이던 경력사항의 ‘공란’에 결코 기죽지 않았다. 오히려 밀쳐야 본전이니 한 번 부딪혀보자는 생각으로 당당히 지원 버튼을 눌렀다. 감사하게도 배움의 기회로 활용하라는 뜻이었는지 결국 나는 이 활동에 참여할 수 있었다. 이 활동을 통해서, 내가 용기 있게 도전하지 않았더라면 절대 시도조차 해보지 못했을 것들을 보고 배울 수 있었다. 비즈니스 환경에서 직면할 수 있는 문제를 빅데이터에 대한 기초 지식과 통계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해결하는 활동을 해보았다. 또한, 텍스트 마이닝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의 2019년 신년사를 시각화 해보기도 하였고, 회사의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데이터를 엑셀로 분석하여 점포의 재방문율을 높일 수 있는 수학적 그래픽 모형을 구성하

여 제시하는 프로젝트도 하였다. 비록 저학년에 비전공생이었던 나는 실제로 팀 내에서 큰 도움이 되지는 못했지만, 옆에서 어깨너머로 계속 보고 다른 실력자분들이 하는 걸 따라해 보면서 눈에 익히고 배우는 소중한 시간으로 삼았다. 내가 이처럼 새로운 경험을 하고 무언가를 보고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많았던 것은 단지, 실력이 없다고 해서 절대 주눅 들거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나의 태도 하나 덕분이었다고 생각한다. 모르는 것은 배워서 알게 되면 되는 것이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로 있는 것보다는, 무엇이든 본인이 움직이고 노력하는 자세가 중요한 것 같다.

이 도전 이후에도 계속 프로그래밍 언어를 접하고 배울 수 있는 곳을 찾아다녔고, 지금도 재무, 코딩, 수학 분야를 다루는 금융공학학회 FR에서 꾸준히 나의 꿈을 향한 공부를 계속해 나가고 있는 중이다.

얻은 것을 다시 베풀고 나누는 삶

이렇게 차차 성장해나가고 있을 무렵, 문득 나를 이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소중한 발판이 되어준 멘토캠프 때의 기억이 떠올랐다. 당시 나의 삶에 대해 그야말로 ‘무표정’이었던 나의 얼굴에, 주체성을 가지고 나아가게 함으로써 처음으로 ‘미소’를 띠게 만들어준 소중한 경험이었던 캠프였다. 이렇게 변화하고 성장한 나는 ‘성장한 나’로서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고민해보았다. 내가 얻고 깨달은 만큼 남들에게도 내가 배우고 느낀 것들을 알려주고 싶었고, 남들에게 베풀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

당시 캠프에는 다양한 또래 친구들뿐만 아니라, 캠프 프로그램을 기획 및 운영하고 나를 비롯한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기 위해 노력해준 대학생 멘토 다섯 분도 있었다. 나도 아이들에게 좋은 말을 해주고 좋은 것들을 나눠주는, 그런 모범이 되는 멘토가 되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바로 올해 여름, 고등학교 2학년 때 멘티로 참가했던 이 캠프에, 3년이 지난 지금, 이번에는 대학생 멘토로 다시 참가하였다.

3년 전 멘티로 함께 만났던 친구들과 다시 만나서 이번에는 멘토의 위치에서



3년 후에 멘토로 다시 참가한 2019 세계청소년 창의융합 인재양성 캠프 단체 사진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원활한 운영을 위해 책임감 있게 임하였다.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성장해오면서 경험하고 느꼈던 것들에 대해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고 응원과 조언을 해주었다. 나는 캠프기간 동안 아이들에게, 이 한가지만은 확실하게 전달하고 싶었다.

“삶을 살아가는 방식은 정말 다양하니, 너희들 각자 자신만의 뚜렷한 개성을 가지고 당당하게 너만의 길을 개척해 나아가라”

이것은 나의 성장의 발판이 되어준 소중한 깨달음인 동시에, 당시에 방황하던 나와 비슷한 시기를 겪고 있을 아이들에게 꼭 전달하고 싶었던 말이었다.

3년 전 멘티에서 3년 후에 멘토로 다시 만난 친구들과 언니들, 동생들의 모습에서도 많은 것들을 느꼈다. 여전히 나와 다른, 다양한 방식으로 각자의 삶에서 이제는 멋지게 무언가를 하나 둘씩 성취해내고 있는 그들을 보면서 또 한 번 삶에 대해 생각하고 깨달았다. 또한, 그들은 각자 너무나도 다르게, 다양하고 멋진 삶을 살아가고 있었지만, 캠프 기간 동안만큼은 하나의 목표를 공유하면서 각자의 능력껏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것을 보면서 내 마음 한편에는 그들의 뜨거운 열정으로부터 느낀 뜨거운 감동과, 자신만 잘나가겠다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좋은 기운들을 나누어주고 서로 함께 나아가려고 하는 나눔의 따뜻함이 느껴지는 시간이었다.



캠프 당시 3조 멘토였던 나와 3조 멘티들과의 사진

앞으로

움직여야 나를 안다. 발버둥치고 이리저리 휘저어 봐야 내가 보인다. 나는 그렇게 나를 찾았고, 성장했다. 앞으로도 내가 큰 가치를 부여하는 일을 이뤄내기 위해 끊임없이 도전하고 나아갈 것이다. 그렇게 나아가다 보면, 또 과정 속에서 또 새롭게 느끼고 깨닫는 게 있을 것이다. 그럴 때마다 나는 늘 주변에 베풀 수 있는 일이 무엇일지를 고민하고 행동으로 실천하며, 주위에 긍정적이고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겠다. 나 혼자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함께 성장’ 하는 ‘따뜻한 발전’을 늘 명심하겠다.

내가 생각하는 ‘학생성공’이란?

‘학생성공’. ‘성공’이라는 단어 때문에 거창해보이지만, 그리 대단하거나 위대한 것은 아니라 생각한다. 내가 생각하는 ‘학생성공’이란, 나에 대한 고민과 성찰을 통해 내 삶에 주체성을 가지고 뚜렷한 목표를 세워 새롭고 낯선 일이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과감히 도전하는 자세로 늘 배워나가며, 작은 것이라도 남들과 나눌 줄 아는 사람으로 성장하는 삶이다. 즉, ‘함께’ ‘성장’ 하는 삶이다.

문과생, 개발자가 되다



도경희(14학번, 사회학과)

문과생이 개발자가 될 수 있나요?

네, 될 수 있어요. 현재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개발 인턴을 하는 동기들 중에도 문과에서 오신 분들이 있어요. 삼성SDS에서 주최하는 알고리즘 교육을 들을 때, 인공지능 실무자 교육을 들을 때도 문과 전공인 분들이 있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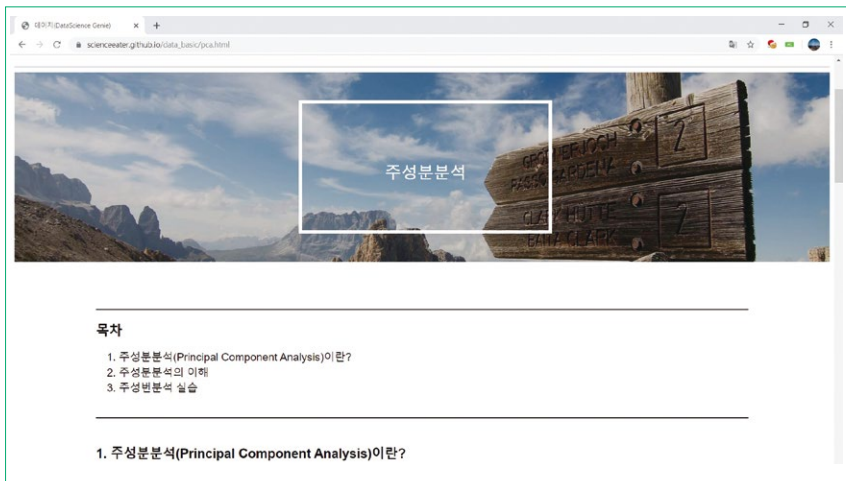
실제 개발 직군에는 다양한 전공의 학생들이 지원해요. 전자전기공학, 반도체 시스템공학, 시스템경영학 등 이공계 전공부터 경영학, 심리학, 영상학과 같은 인문계, 예술계열 학생들도 개발 직군에 뛰어들어요.

코드를 이해하고 작성할 수 있다면 전공은 중요하지 않아요. 흥미가 있다면 더욱 좋아요.

개발자가 되면 무엇이 좋나요?

먼저, 만들고 싶은 것을 직접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저는 공모전에 참여하는 것을 좋아하는데, 프로그래밍을 배우기 전 공모전에서 늘 아쉬웠던 점은 제

가 생각하는 바를 다른 사람들이 시험해볼 수 있는 무엇인가가 부족했다는 점이었어요. 제가 생각하는 것을 제한된 환경에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발표를 듣는 청중들, 그리고 아이디어의 혜택을 얻을 사람들이 직접 작동해보고, 느낄 수 있는 것을 늘 만들고 싶었거든요. 이런 제 아쉬움을 채워준 것이 프로그래밍이었어요. 핸드폰 어플리케이션, 웹사이트 등을 만들어서 제출하고, 사람들이 실행해볼 수 있도록 하면 일방적으로 제가 말하는 발표가 아니라, 함께 만들어나가는 발표를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이번 학기(19년도 2학기)에 참여한 교내 코딥러닝(Co-DeepLearning) 프로젝트에서도 프로그래밍은 도움이 됐어요. 저희 팀은 데이터 분석 공부를 도와주는 웹사이트를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이 직접 방문해보고, 콘텐츠를 이용해볼 수 있도록 하였는데요, 웹사이트를 구현한 덕에 다른 사람들이 저희 아이디어를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었고, 나아가 피드백을 얻기도 수월했어요. 만들고 싶은 것을 직접 만들 수 있게 된다는 것, 그것이 제가 생각하는 개발자의 가장 큰 매력이에요.



코딥러닝 프로젝트를 위해 구현한 웹사이트 화면 캡처

둘째로, 취업과 진학의 폭이 비교적 넓어요.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지 않는 기업은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기업은, 특히 규모가 큰 기업

은 소프트웨어를 잘 이해하는 사람을 필요로 해요. 소프트웨어를 잘 활용하면 인건비, 장비 유지보수 비용과 같은 비용을 크게 줄이고 고객의 편의성을 크게 증진시킬 수 있는데, 소프트웨어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기술이 있어도, 혹은 기술을 구매하였더라도 잘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 이유로 거의 모든 기업은 소프트웨어를 관리하거나 개발할 수 있는 사람들을 채용해요. 개발 직군이 금융업, 공공기관, 제조업, 서비스업 등의 분야로 진출할 수 있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에요.

진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컴퓨터공학은 이론적 학문이면서 동시에 응용 학문이에요. 미국에서는 컴퓨터공학을 컴퓨터 과학(Computer Science), 그리고 컴퓨터 엔지니어링(Computer Engineering)으로 분류해요. 전자가 컴퓨터 구조, 알고리즘, 데이터베이스와 같은 이론에 더욱 집중한다면 후자는 신호처리, 로봇틱스, 분산처리와 같은 이론의 응용을 다룬다고 할 수 있어요. 동시에 이론과 응용을 결합한 인공지능, 컴퓨터 그래픽스와 같은 분야도 있어요. 선호에 따라 다양한 분야로 진학을 할 수 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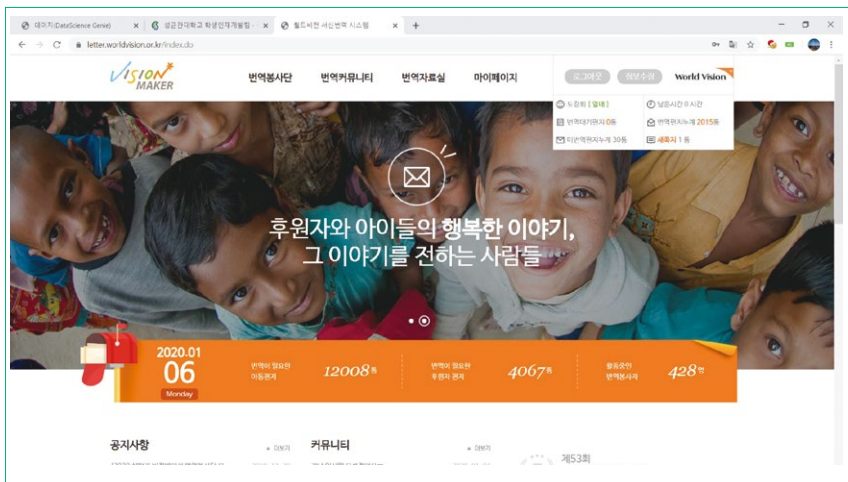
셋째로, 세계를 무대로 활약할 수 있어요. 개발자들은 국가에 상관없이 사용하는 언어가 유사해요. 대체로 C, JAVA, Python, Javascript와 같은 언어를 기본으로 사용하는데요, 이는 위 네 가지 언어를 통해 전 세계 누구와도 대화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실제로 개발자들이 코드를 저장하고 공유하는 웹사이트 깃허브(Github)를 보면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사용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좋은 코드를 올릴 경우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의 좋아요를 얻을 수도 있고, 때로는 채용제외도 받기도 해요. 저는 공부할 때 깃허브를 많이 이용했는데요, 코드 작성자의 국적 중에 기억나는 것만 해도 미국, 인도, 중국, 러시아가 있어요. 위 네 나라 모두 저와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나라인데, 프로그래밍 세계에서는 저와 같은 언어를 사용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왜 개발자가 되기로 했나요?

소프트웨어를 배우는 것이 제 꿈을 이루는 가장 현실적인 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어릴 때부터 저의 꿈은 암 환자를 위한 무엇인가를 만드는 것이었어

요. 암진단을 받은 가족과 친척의 모습을 보면서 자라다보니 아프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게 되더라고요. 장기질환은 참 무서워요. 환자 본인도 아프고, 주위 가족들도 오랜 시간 환자를 간호하면서 마음을 줄여야 하거든요. 게다가 환자와 가족이 지방에 살 경우에는 정기 검사, 의사 면담 등을 위해 상경해야 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는데, 이 또한 가족에게는 경제적, 정신적 부담이 돼요. 환자의 컨디션에도 악영향을 주고요. 그래서 병원과 환자의 중간에서 의료정보를 제공하여 환자가 병원을 가는 일을 최소화시켜주는 무엇인가를 만들고 싶었어요. 그렇게 하면 환자의 컨디션에도 도움이 될 것이고, 가족의 경제적, 정신적 부담 또한 덜어줄 것 같았거든요.

그러던 중 어느덧 대학생이 됐어요. 의사가 되기보다 실제로 무엇인가를 만드는 사람이 되고 싶었던 저는 우선 제가 어떤 일을 잘 할 수 있고, 어떤 일을 좋아하는지 찾고 싶었어요. 장기적인 꿈이고, 아직 조금 더 구체화가 필요한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저의 강점을 찾고, 강점을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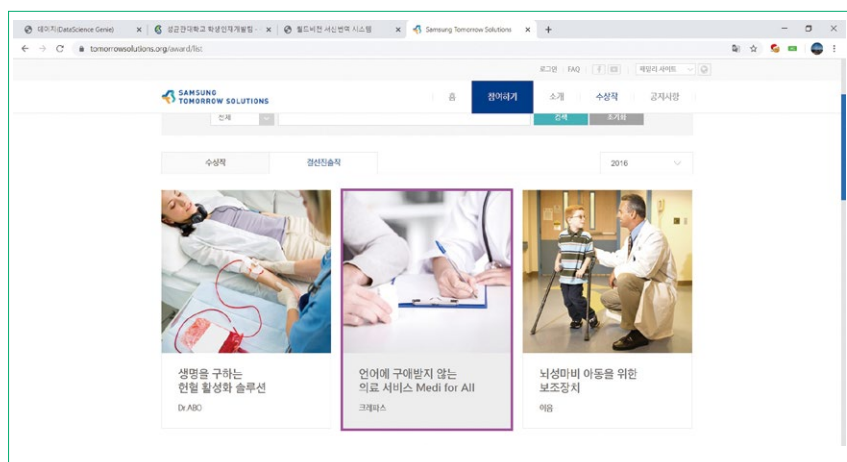


번역 봉사 사이트 메인 화면

그래서 무작정 많은 것에 도전해보기로 했어요. 공모전도 나가보고, 외국 경험도 해보고, 대내·외 활동, 봉사, 아르바이트도 하면서 다양한 것을 경험하다 보

면 제가 좋아하고, 잘 할 수 있는 분야를 찾을 것이라고 믿었던 것 같아요. 수치로 봐도 많은 경험을 했는데요, 참가한 30개가 넘는 공모전 중 수상한 공모전은 지금까지 9개(기획 1, 창업/아이디어 4, 번역 1, 영상제작 1, 자기PR 2, 프로젝트 1)였고, 해당 국가의 언어로 교환학생을 간 학교는 2개(미국 인디애나대학, 중국 충칭 대학)였어요. 봉사시간은 약 600시간(번역 537, 통역 42, 교육봉사 30)이었는데, 2년 동안 2000통이 넘는 편지를 번역하면서 다양한 삶의 모습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이 개인적으로 의미있고 좋았어요.

무작정 많은 것에 도전한지 약 1년이 됐을 때 저는 제 진로를 구체화할 수 있었어요. 삼성전자 공모전 결선에 진출하면서 우연히 프로그래밍을 접하게 됐는데, 너무 재미있더라고요. 외국인을 위한 증상 진단 프로그램을 제안하다보니 데모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코딩을 해야 했고, 당시 외주를 맡길 여건이 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직접 코딩을 배워가면서 했는데, 소프트웨어를 배우면 암환자들을 위한 더욱 구체적인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코딩을 접하게 해준 삼성전자 공모전 화면

그렇게 저는 프로그래밍을 배우게 됐어요. 우리 학교는 예전부터 복수전공 제도 활성화를 통해 학생성공을 지원해왔어요. 덕분에 저는 인문사회캠퍼스의 인포

매틱스 전공, 자연과학캠퍼스의 컴퓨터공학 전공 수업을 모두 들어볼 수 있었는데요, 실제 프로그래밍에 더욱 관심이 있었던 저에게는 컴퓨터 공학이 더욱 맞는다고 판단하여 컴퓨터공학을 선택했어요.

복수전공 2년차에 접한 인공지능은 저의 꿈을 다시한번 구체화해주었어요. 인공지능은 데이터를 학습하여 사람과 유사하고, 심지어는 사람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저를 이를 통해 병원과 환자를 이어줄 인공지능 간병 비서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지금 저는 KT에서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개발 인턴을 하고 있는데, KT가 제공하는 인공지능 스피커, 기가지니를 조금만 개선하면 간병 비서로도 활용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지원했어요. 기가지니의 음성 인식 및 처리 기술, IoT기술, 그리고 딥러닝을 이용한 사용자 맞춤 서비스를 완전히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이 앞으로 5년 동안 저의 목표예요. 그 뒤에는 제 꿈을 현실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전에 누군가 좋은 서비스를 개발한다면 그 팀에 합류해도 좋을 것 같아요.

개발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나요?

개인적으로 네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선 무엇이든 만들어보세요. 코드의 수준이 높지 않아도 좋아요. 코드를 직접 짜보지 않으면 어떤 것을 할 수 있고, 어떤 것을 할 수 없는지 알 수 없어요. 보기에는 쉬운 기능인 것 같아도, 막상 구현하려고 하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스스로 고민해보고, 검색해보고, 누군가에게 물어보는 과정을 반복하는 것이 실력을 키울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곰곰이 생각해보고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을 때는 인터넷을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저희가 막히는 부분에서는 다른 사람들도 막히기 때문에 인터넷에 해답이 올라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에요. 프로그래밍 언어는 만국 공통이고, 프로그래밍 분야의 가장 큰 장점이 자신이 아는 것을 아낌없이 공유한다는 것이거든요.

둘째로, 다양한 기술을 이용해보세요. 나아갈 수 있는 분야가 넓어지기 때문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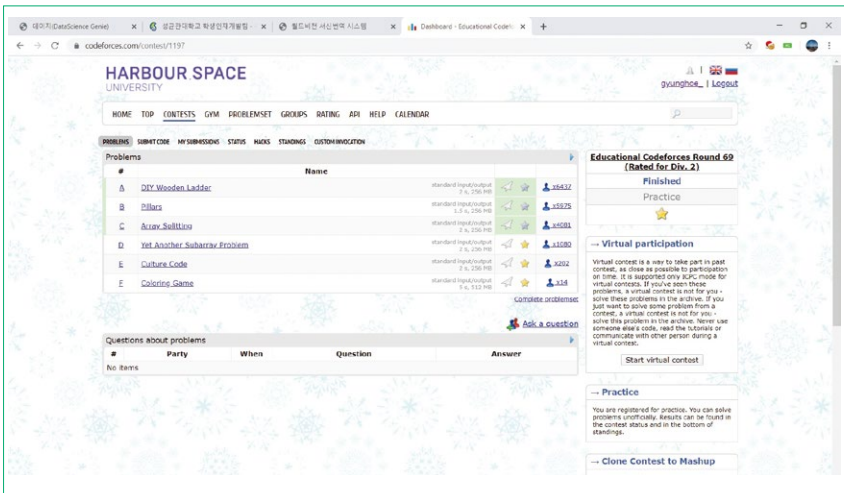
에요. 새로운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우는 것을 두려워하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사실 프로그래밍 언어는 다 비슷비슷해요. 그렇기 때문에 프로그래밍 언어 하나에 익숙해진 이후에는 다른 언어, 그리고 언어를 활용한 프레임워크를 매우 빨리 배울 수 있어요. 각각의 언어와 프레임워크는 특화된 분야가 조금씩은 다른데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에서는 특수한 언어나 프레임워크에 대한 경험을 채용 우대조건으로 제시하는 경우가 많아요. 한번 접해본 것과, 접해보지 않은 것은 차이가 크기 때문이에요. 이는 즉 큰 노력을 들이지 않고 접해본 언어와 프레임워크가 훗날 자신의 큰 자산이 될 수도 있다는 말이기도 해요.

셋째, 개발자로 참여할 수 있는 곳에 많이 나가보세요. 개발자로 참여할 수 있는 곳은 크게 공모전과 같은 대회, 그리고 컨퍼런스나 교육과 같은 모임으로 나뉘어요. 해당 분야를 접해봤다면 두 가지 모두 나가는 것이 좋아요. 실력이 충분하다면 두각을 나타내는 법을, 실력이 부족하다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성장해왔고, 자신은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 지를 배울 수 있기 때문이에요. 저는 해커톤에 참여했던 경험이 기억에 남아요. 모션 인식 기능을 활용하여 운동 코칭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네이버 지식인과 같은 서비스를 개발하는 친구들을 보면서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거든요. 또 동시에 많은 자극이 되었어요. 다들 같이 코딩하고 협업하면서 얼마나 열심히 공부해왔는지 느껴지더라고요.



해커톤 참여 당시 사진

마지막으로, 도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도전을 해야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처음으로 온라인 알고리즘 대회에 참여하고 나서 느낀 점은 저는 가망이 없다는 것이었어요. 사람들은 다들 거침없이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저는 첫 번째 문제에 제한 시간 두 시간을 다 써버리더라고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사람들이 이런 문제를 풀면서 실력을 키워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계속 참여했어요. 유명한 문제들을 풀어보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의 풀이를 참고 하다보니 예전에 제가 어떤 실수를 했는지가 보이기도 했어요. 그렇게 1년이 지나고 같은 문제를 풀어봤어요. 예전에는 2시간이 걸려도 못 풀던 문제가, 이제는 30분도 안 걸리는 것을 보고 깨달았어요. 계속 도전하다보면, 성장할 수 있다는 것ですよ.



온라인 코딩 대회 사이트 캡처

학생성공 수기집을 읽는 분들께 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사실 저는 이 책에 실린 다른 분들처럼 뛰어나지 않아요. 제가 이런 성취는 누구나 이룰 수 있는 성취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

는 부분을 언급하고, 연락 가능한 메일 주소를 남기고자 해요. 제 메일 주소는 ehrudghl123@naver.com입니다.

제가 학생성공 수기집을 읽는 분들께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분야는 크게 두 가지예요. 먼저, 저는 개발 직군에 관심이 있는 비전공자 분들이 궁금한 점을 대답 해줄 수 있어요. 저 또한 비슷한 고민을 했었고, 지금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가장 먼저 어떤 프로그래밍 언어를 공부하는 것이 좋은지, 어떤 것을 순서대로 공부해야 하는지, 어떤 분야에 관심이 있다면 어떤 것을 공부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이 궁금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시스템 개발을 하고 싶다면 C, 웹/앱 어플리케이션을 배우고 싶다면 JAVA, 데이터 분석을 배우고 싶다면 Python을 가장 먼저 배우고, 이후 과정은 인터넷을 참고하면서 직접 설계해나가는 것을 추천드려요. 사람에 따라 나아가는 방향이 다를 수도 있고, 배워야 하는 과목 또한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그래픽스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C++, 선형대수학을 배우신 다음 OpenGL을 배우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우리 학교의 교육과정에 포함된 프로그램이기도 하고, 설치 또한 간단하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로, 저는 교환학생이나 영어, 중국어 학습에 대한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미국과 중국으로 1학기씩 교환학생 파견을 다녀왔어요. 미국의 대학 문화는 어떤지, 유학을 준비할 때 어떻게 준비하였는지, 어학 점수는 어떻게 관리하였는지 등이 궁금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다만, 저는 IELTS를 쳤기 때문에 TOEFL은 잘 모른다는 것을 양해해주세요. 토익(듣기 495, 읽기 490), 토익스피킹, 오픽, 텡스(구 텡스 800점 중반)와 같은 어학 시험 관련 문의도 제가 답변할 수 있는 것이라면 답변 드리고 싶어요. 또 중국의 대학 문화는 어떤지, HSK는 어떻게 준비하였는지 등이 궁금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HSK를 군대에 있을 때 공부했는데, 5급 시험을 칠 때는 과외를 받은 적도 있고, 학원을 다닌 적도 있어요. 개인적으로 시험 준비에는 학원이 조금 더 적합하다고 생각해요. 체계가 더 잘 갖추어져있고, 진도 또한 빠르다는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반면 교환학생 합격 이후 회화를 준비하시고 싶다면 과외가 더 적합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같은 학교를 다니는 중국인 학우에게 과외를 받았는데, 같은 학교를 다니는 중국인 학우들

이라면 누구든 좋은 과외 선생님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무엇보다 관심사가 중국 대학생들과 비슷해요.

사실 꿈을 이루어간다는 것이 쉬운 일만은 아니에요. 무엇인가 이루기까지는 실패도 겪어야 하고, 불안함도 극복해야 해요. 하지만 나중에 오늘을 돌아봤을 때 후회가 남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기에, 저는 앞으로도 저의 꿈을 향해 계속 달려나갈 거예요. 지금까지 저의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학생성공’이란?

꿈이 꿈에 그치지 않도록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 과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어려움을 마주하는 법을 배우면서 저희는 성장하고, 어려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저희는 성공에 더욱 가까워지기 때문이에요. 때로는 실패하더라도, 저희는 학생이기에 꿈을 꾸고 나아가야 해요. 젊음은 저희의 무기이거든요.

정답은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다



이웅재(15학번, 시스템경영공학과)

들어가며

본 수기의 목적은 아직 진정으로 하고 싶은 것을 찾지 못한 학우들에게 조금 더 생각할 기회를 제공하고, 새로운 도전을 주저하는 학우들이 한 발 내딛을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데 있다. 대학생활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지난 4년간의 경험을 통해 내가 생각하고 느꼈던 점을 최대한 담고자 하였다.

어렵고 아쉽다 - 첫 팀프로젝트 이야기

2016년, 성균관대학교를 입학하고 나의 첫 팀플은 교양과목 ‘과학기술글쓰기’에서 시작되었다. 한 번도 제대로 된 팀플을 해본 적 없었기에 ‘대학의 팀플’에 대한 왠지 모를 기대감이 들었다. 그러나 현실은 생각과 달랐다. 시작부터 만나는 시간에 대한 조율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뼈저거렸다. 특히 모이는 시간에 예고 없이 20분 이상 늦는 경우는 정말 짜증났다. 기대했던 ‘으쌔으쌔’의 분위기도 아니었고 대다수가 침묵을 지키며 수동적인 자세로 참여했다. 무엇보다 내가 열정을 쏟아도 흐름은 쉽게 바뀌지 않았다. 주제 선정에 있어 많은 의견이 나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저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 주제가 선정되었다. 실험방법 또한 마찬가지로 깊은 논의 없이 다수결로 결정되었다. 무엇인가 문제가 있음을 느꼈지만 ‘원래 이런 건가?’라는 의문을 머릿속에 남겨둘 수밖에 없었다.

우여곡절 끝에 프로젝트가 교수님의 평가와 함께 완전히 종료되었다. 그러다 문득 배움을 위한 프로젝트가 아닌 단순히 성적을 위한 프로젝트라는 생각에 회의감이 들었다. 예를 들어 80점 이상이 모두 같은 성적이라면, 100점을 바라보기 보다는 80점 이상만 되도록 시간 투자를 하고, 남은 시간에는 다른 것을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선택인 것처럼 느껴졌다. 그런 이유로 나는 한동안 ‘최선’을 다하지 않고 일정 수준 이상 ‘적당히’ 참여하며 현실과 타협했다.

그 때를 돌이켜보면 첫 팀플은 어리숙한 신입생들의 아주 피상적인 팀프로젝트였다. 그러나 그 경험이 있었기에 문제의식을 가질 수 있었고, 이는 이후의 경험과 함께 팀플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긍정적인 자세를 찾게 해주었다.

대학생활의 전환점 - 융합기초프로젝트 이야기

2017년, 2학년이 되어 학교 공지사항을 읽다 우연히 교내 프로그램인 ‘융합기초프로젝트’ 참가자 모집 공지를 보게 되었다. 해당 프로그램은 다양한 배경의 학생들이 한 팀을 이루어 지역사회의 문제를 찾고, 4개월 동안 이를 해결해나가는 프로젝트였다. 이런 거창한 목적보다는 나와 다른 분야의 학생들과 한 팀을 이루어 무언가 한다는 것이 흥미로워 참가하게 되었다

팀원들을 만나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날마다 나는 매번 놀라움을 느꼈다. 그 놀라움의 근원은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사고방식에 대한 충격이었다. 즉, 어떤 일에 대해 바라보는 관점이 너무나 달랐던 것이다. 공대생인 나는 눈에 보이는 인과관계에 따라 원인을 찾고 해결해 나가는 프로세스가 있다. 생각의 차이는 있더라도 사고방식 자체는 나와 비슷한 사람들을 주로 만나왔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했다. 그러나 팀원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관점과 전혀 다르게 이야기했다. 예를 들어 한 팀원은 우리의 주제와 관련해 디자인의 관점에서 문제를 분석하여 솔루션



융합기초프로젝트 첫 회의

선을 제시했고, 또 다른 팀원은 사람 사이의 심리적인 요소와 연관 지어 의견을 냈다. ‘아니 어떻게 이런 방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지?’ 신기하면서도 당황스러웠다. 정답이 하나라고 생각했던 객관식 문제가 알고 보니 선택지의 개수 제한 없는 복수정답의 문제였던 것이다.

기술적인 한계에 의해 팀의 아이디어였던 ‘여성 안심 쉼터하우스 App’의 결과물에 대한 아쉬움은 있었지만, 우리는 유일하게 팀 워크상이라는 특별상을 수상했다. 무엇보다 4개월간 프로젝트를 참여하며 나는 대학생활을 새롭게 임할 수 있도록 영향을 준 두 가지 배움을 얻을 수 있었다.

첫 번째는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과의 시너지 효과이다. 여러 분야의 팀원들이 있었기에 각각도의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볼 수 있었고, 프로젝트 시작 전에 전혀 관련이 없는 분야라 단정하는 편견을 깨부술 수 있었다. 또한 여러 아이디어들은 반복된 회의를 통해 자연스럽게 융합하게 되었는데, 1+1이 2가 아닌 3 이상의 시너지 효과가 있다는 것을 느꼈다. 즉, 개별로 존재했던 아이디어들이 새롭게 창의적인 결론으로 합쳐질 수 있음을 깨닫게 된 것이다.

이후 나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는 데 관심이 생겨 매일 학교 공지사항이나 대외활동 정보를 찾아보게 되었다. 또한 단순히 학업을 위한 목적이라는 이유로 회의감을 가졌던 학업 중의 프로젝트가 협업 능력을 발전시킬 수 있는 배움의 장으로 새롭게 다가왔다.

두 번째는 우리 사회의 문제들에 대한 깊은 고민의 중요성이다. 미세먼지, 주거난, 쓰레기 문제, 고령화 등의 빅 이슈부터 일상의 사소한 불편함까지 많은 것을 보고 듣고 경험하며 살아왔다. 하지만 부끄럽게도 그 순간 외에는 그 문제에 대해 깊게 생각하지 않았다. 바쁜 삶 속에서 그 생각 자체가 귀찮았고, ‘누군가 해결해 주겠지’ 하고 치부해 버렸다. 그러나 프로젝트를 통해 여러 이슈들에 대해 반복적

으로 고민하면서 이 과정 자체가 의미 있게 느껴졌다. 지금과 같은 깊은 고민을 여러 사람들이 반복적으로 할 때 비로소 그 문제들이 하나씩 해결될 수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 너무나도 당연한 말이지만 모두가 남들이 대신 고민해줄 거라 생각한다면 어떻게 그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겠는가.

나는 그 이후로 주변의 사소한 문제나 불편함부터 관찰하고 이에 대해 고민하는 습관을 가지기 시작했다. 여름철 남성 소변기, 도서관 미발권 이용자, 1인 가구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까지 내가 직접적으로 느낀 점들을 메모장에 적었다. 나열된 여러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때로는 다른 사람과 이야기를 하며 아이디어를 발전시켜 나갔다. 무엇보다도 문제를 찾아 정의하고 고민해나가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자연스럽게 창업이라는 꿈이 생기기 시작했다.

성장, 자신감 - 대외활동 이야기

2018년, 3학년이 되어서도 교과 이외에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프로젝트를 해보고 싶었다. 특별한 이유는 없었고, 단순히 재미있는 경험이 될 것이라 생각했다. 교내 취업&진로 리서치, 글로벌챌린지(해외 기업 탐방 프로그램), 스마트 아이디어 공모전을 시작으로 교외의 도시재생 프로젝트, 삼성드림클래스를 지원했다. 결과와 관계없이 다양한 사람과 만나면서 견문을 넓힐 수 있었는데 지금 되돌아보면 그 때의 경험 모두가 지금의 나를 있게 해준 자양분이었다.

특히 아이디어 공모전과 취업&진로 리서치 프로젝트가 기억에 많이 남는다. 아이디어 공모전의 경우 우리 팀은 도서관 미발권 이용 문제를 LED와 사람의 심리를 이용한 솔루션으로 대상을 수상했다. 조용한 도서관 분위기에서 발권하지 않고 사용하는 불량 이용자에게는 말을 거는 것조차 부담스럽다. 이를 압력 센서, LED, 발권 시스템을 연동 후 불량 이용자 좌석에 주홍글씨를 새겨 자발적으로 올바른 행동을 하도록 유도했다. 많은 학생들이 아이디어에 공감해주었고 이를 통해 ‘나도 할 수 있다’라는 큰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다.

한편 취업&진로 리서치는 관심 있는 직업 혹은 직무에 대해 현업에 있는 전문



IOT 기술을 이용한 스마트 도서관 작성 시스템

가를 직접 만나 인터뷰를 하는 프로그램이었다. 우리 팀은 인천에 가서 포스코의 시스템 개발자로 계신 전문가를 만났다. 그러나 관련된 여러 직무도 기대했던 것과 달랐고 무엇보다 이 길은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닌 것 같았다. 이를 계기로 ‘취업’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되면서 나는 취업 자체에 전혀 관심이 없음을 깨닫게 되었다. 그 결과 나의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창업이 더욱 하고 싶어졌다.

떨림, 두려움, 기대 - 24살 대학생의 스타트업 이야기

2019년, 문득 대학을 다니면서 불편했던 점을 고민하던 중 대외활동, 장학금, 동아리 등의 많은 정보 속에서 필요한 정보를 찾는 데에 불필요한 시간과 노력이 수반됨에 문제의식을 가지게 되었다. 학교 공지사항을 필두로 스O업, 예O리타임 등 단순 정보를 제공해주는 서비스는 많았지만, 정보가 무분별하게 제공되어 필요한 정보를 찾는 데에 번거로움이 있었다. 즉, 사용자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가 부재했고 특히 학생단체(동아리, 학회, 학생회 등) 정보는 시공간적인 제약에도 불구하고 오프라인에서 포스터나 홍보부스로 홍보하는 경우가 빈번했다. 이에 단순히 정보를 제공해주는 서비스가 아닌 사용자 맞춤형 정보 제공 서비스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러다 3월에 개강을 하고 우연히 1년 만에 복학한 같은 과 친구를 만나 반가운 마음에 커피를 한잔하며 근황을 얘기했다.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어린이용 미세먼지 차단 헬멧, 연기에 색상을 입혀 간접흡연을 피할 수 있는 색상 담배 등 여러 아이디어와 함께 맞춤형 동아리 정보 제공 서비스를 친구에게 설명했다. 다른 아이디어에 대한 미지근한 반응과 달리 맞춤형 동아리 정보 제공에 대해 친구의 반응이 뜨거웠다. ‘오 이게 정말 괜찮은 아이디어 맞구나!’ 하면서 문득 아침에 학

교 공지사항에서 봤던 창업 자금 특강이 그 주에 있음이 기억났다. 아이디어도 구체화되지 않았고, 어떻게 할지 아무것도 정해진 것도 없었다. 그렇지만 해보고 싶었다. 나의 아이디어에 열렬히 공감해준 친구와, 아이디어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구현해 보고 싶은 생각에 친구에게 스타트업을 해보자고 제안했다.

그 후 우리는 한 달 동안 매일같이 만나며 모집, 운영, 기록까지 한 번에 할 수 있는 학생단체 종합관리 솔루션을 구체화하고 PPT로 프로토타입을 디자인했다.



초기 MVP 디자인

그럼에도 불구하고 PPT 슬라이드 몇 장과 기능을 정리한 한글 문서가 비전공자인 우리가 가진 전부였다. 대학생의 패기였을까. 우리는 달랑 그 몇 장의 PPT와 한글문서로 정부의 창업 지원 프로그램에 지원했다. 일단 제출을 하니 후회는 없었다. 다만 서류결과가 나올 때까지 매일 떨렸다. ‘과연 될까..?’, ‘내 아이디어를 전문가들도 인정해줄까?’ 여러 생각이 교차했다. 4월 중순 아르바이트를 다녀오는 길에 ‘서류 합격’이라는 결과를 확인했다. 친구에게 소식을 알렸고 우리는 기뻐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하필이면 면접 발표 날짜가 학교 중간고사와 겹쳤다. 중간고사를 포기하면 F가 확정이었기에 고민에 빠졌지만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다. 어쩌면 다시 오지 않을 기회란 생각에 나는 면접 발표를 선택했다. 떨리는 시간이 지나고 4월 말의 어느 날, “축하드립니다. 이웅재님은 19년 예비창업패키지에 최종 선정되었으며, 최종 지원 결정 금액은 3,600만 원입니다”, 문자를 받고 날아갈 듯이 기뻐다.

인생은 역경과 고난의 연속이라고 했던가. 최종 선정된 기쁨과 별개로 4학년이었기에 고민에 빠지게 되었다. 취업을 생각한다면 당장 군 문제를 해결하고 취업 준비를 해야 했다. 창업을 하게 되면 짧게는 1년, 길게는 3년 이상의 시간을 투자해야 했고, 성공할 것이라는 보장도 없었다. 주변 대다수의 지인들은 선정됨에 대



2019 경기청년 창업한마당 단체사진

한 축하와 별개로 이렇게 말하면서 창업을 만류했다. “명문대에서 열심히 학교생활 해왔고 더 쉽게 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굳이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왜 가려고 하니?” 이 말을 들으니 나도 마음이 흔들렸다. 실패했을 때에 대한 두려움으로 며칠 동안 계속 고민했다. 그러다 어느 날 저녁 문득 이 기회를 해보지도 않고 포기한다면 너무 후회

할 것 같았다. 대다수가 가는 길이 항상 정답인 것은 아니고, 아직 정해진 답이 없다면 내가 가는 이 길을 정답으로 만들면 그만이라고 생각했다.

그 후 5월부터 부족한 점을 메꾸며 밤낮 치열하게 살았다. 그 결과 더 많은 자본금을 확보하여 직원을 고용하고, 특허출원과 함께 사업 아이템 제작을 시작했다. 직접 교내의 수십 개의 학생단체의 회장들을 만나 인터뷰를 하면서 서비스에 대한 평가에 웃고 울기도 했다. 중간에 6번의 창업경진대회에 모두 탈락하면서 내가 잘 하고 있는지 스스로 의심도 했다. 특히, 서비스 출시 전인 상황에 매출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때때로 팀원들의 사기가 꺾일 때면 포기하고 싶었던 적도 있었다. 하지만 그때마다 지인들과 얘기를 하면서 스스로 어떤 마음으로 시작하고 지금까지 걸어왔는지 되돌아보았다. 크게 보면 항상 긍정적인 일만 일어날 수는 없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감이 떨어지는 이유가 뭘까. 그건 아마 남들과의 비교 때문인 것 같다.

요즘에도 사업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이슈로 인해 매주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람인지라 한숨이 나오면서 흔들릴 때도 있다. 그러나 나는 남과 비교하지 않고 내 의지로 나만의 길을 걷고 싶다. 이제 2020년, 모든 재학생들이 우리 팀의 학생단체 종합관리 서비스(투게더C)를 사용할 날을 꿈꾸며 나는 계속 도전한다.

내가 생각하는 ‘학생성공’이란?

본인이 생각하는 ‘학생성공’의 3가지 요소를 소개하고, 독자들과 하고픈 말을 나누며 글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첫째, 자신의 목표 혹은 꿈 찾기

물론 대학에서 배우는 전공지식은 중요하다. 하지만 학점에 매달려 학업에 ‘만’ 몰두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대학을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곳이 아닌 자신의 비전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학습의 장으로 바라보았으면 한다. 특히 교내외의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자신과 다른 분야의 사람들을 많이 만나 경험을 쌓았으면 한다.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당신의 비전을 찾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둘째, 주변에 개의치 않고 자신의 길을 향해 한 발자국 걸어보기

하고 싶은 것이 있더라도 주변에 시선과 분위기 등의 이유로 고민하고 있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나 또한 현재의 길이 옳은지 고민했었으니 공감한다. 하지만 충분히 고민을 해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고민이 된다면, 일단 한 발자국이라도 떼어보았으면 한다. 그 한 발자국으로 새롭게 느끼는 것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하나 더 덧붙이자면 남들이 가는 길을 내가 가야 하는 길로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셋째, 자신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하고 부족한 역량 개발하기

꿈을 찾고 그 길을 향해 한 발자국 떼어보았다고 그 꿈이 반드시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현재 스스로에 대한 객관적인 진단이 필요하고 부족한 역량을 개발해야 한다. 스스로 분석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 지인들과 함께 이야기하면서 진단하는 것을 권한다. 특히 유사한 길을 먼저 걷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다. 나 또한 처음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했지만 막상 조언이 큰 도움이 된 기억이 많다.

모두가 자신만의 비전을 찾고 도전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감사합니다.

소소함에서 탄생한 거창함



염태민(14학번, 컴퓨터교육과)

소개

먼저 모르는 사람을 위해 소개를 해야 할 것 같다. 나는 대학생 온라인 커뮤니티 중 하나인 “에브리타임”의 우리 학교 학생만이 접근할 수 있는 게시판에서

브로리

대댓글 공감 삭제

총 수료학점이 130인걸보니 예술대생이신가 봅니다. 3,4학년때도 18학점 수강 가능합니다.

19/09/03 20:22

브로리

공감 삭제

그럼 내년에 정규학기에 36학점 들으실 수 있고 15학점이 남으니 계절학기 최대로 들어도 총량이 안 되겠네요. 이번 학기에 4점대를 받아서 내년에 21, 21학점을 들으시고 계절학기까지 최대로 들으면 졸업이 이론상으로 가능하겠습니다.

19/09/03 20:23

익명(글쓴이)

공감 쪽지 신고

이번 겨울 계절학기에 6학점 내년 계절학기 9학점을 듣는 방안도 가능할까요?

19/09/03 21:19

브로리

공감 삭제

이번 여름에 3학점 이하로 들으셨으면요. 그런데 계절학기에 전공 수업이 거의 안 열린다는 걸 유념하셔야합니다.

19/09/03 21:21 1

익명(글쓴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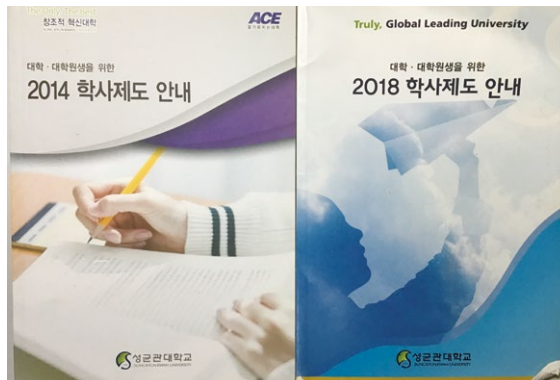
공감 쪽지 신고

감사합니다!!

“브로리에게 물어봐” 게시판 답변

“브로리”라는 닉네임으로 1학년이었던 14년부터 활동을 했다. 자유게시판에 올라오는 질문 글(주로 학사제도 관련)에 내가 아는 한도 내에서 꾸준히 답변을 해왔다. 또한 에브리타임에는 개인이 게시판을 만들 수 있는 기능도 있는데 18년 7월부터는 다른 학우가 만들어준 “브로리에게 물어봐” 게시판(이하 브로리 게시판)에서도 활동하였다. 이 글을 작성하는 20년 1월초 기준으로 브로리 게시판에는 약 6천 개의 글이 올라왔고 대부분은 나의 답변이 달려있는 상태이다. 이러한 활동을 인정받아 학생성공스토리 공모전에서 수상자로 선정되었고 이렇게 수기를 작성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얻었다.

브로리 게시판에서 특별히 질문 주제를 제한하고 있지는 않으나 주로 올라오는 질문은 학사제도 관련으로 수강신청, 복수전공, 성적 관련, 장학금, 기숙사 같은 주제이다.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다소 이해하기 힘들게 안내되어 있거나 찾기 힘들 때, 그리고 확실하게 명시되지 않아 경험상으로만 알 수 있는 사항 등을 알려주는 경우가 유용한 답변일 것이라 생각한다. 그 외에도 다양한 주제의 질문이 나오는데 진로 관련 질문도 꽤 많다. 나의 전공이 컴퓨터교육이랑 전자전기공학이기 때문에 내가 아는 분야라면 성심성의껏 답변한다. 마침 취업에도 성공을 한 참이기 때문에 같은 분야에 취업을 준비하는 학우에게는 해줄 말이 많다. 다만, 인문사회계열 전공을 가진 학우의 복수전공 및 취업 분야와 같이 나와 완전히 관련 없는 질문의 경우에는 단지 학사제도 안에서 내가 아는 유리한 선택을 제시할 뿐이다.



나와 오랜 시간 함께했던 학사제도 안내 책자

전문성이 보장되지 않은 평범한 학부생인 나의 답변을 어떻게 신뢰하느냐는 의문을 품을 수가 있다. 타당한 생각이다. 하지만 나도 아무리 재미 삼아 활동을 한 다 하더라도 최대한 정확하게 답변을 하고 싶기 때문에 애매한 부분은 확실히 확인을 하려 노력한다. 그래서 재학 중 항상 내 가방에 학사제도 안내 책자가 들어 있었고 휴대전화엔 책자의 pdf파일을 넣어 가지고 다녔다. 내용 대부분을 자연스럽게 숙지하기는 했으나 가끔 잘 기억이 나지 않을 때마다 재확인하면 올라오는 질문의 거의 절반은 이 안에서 해결이 가능했다. 그 외 질문은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보면 알 수 있거나 그것도 아니라면 경험에 의해서 알게 되는 부분도 있다. 공지나 학사제도 안내가 모호해서 나도 확실히 알고 싶을 때에는 교내 부서인 학사바로센터에 전화를 해서 문의한 적도 종종 있었다. 그런 일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더 많았는지 19년 초에 전화를 걸었을 때 교직원 분이 내 이름을 기억하며 문의 전화를 자주 건다는 말을 하시기도 했다. 그 외에도 나는 복수전공을 하느라 인문사회과학캠퍼스와 자연과학캠퍼스를 모두 재학했던 것도 학교 사정을 좀 더 잘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한동안 자유게시판에서만 답변을 할 때는 내가 아는 내용의 질문에만 답변하면 되었는데 브로리 게시판이 생긴 뒤에는 내가 모르는 내용의 질문도 늘어나기 시작했다. 이럴 때는 나도 궁금한 내용이면 다양한 경로에서 정보를 수집해 답변해주었고, 이렇게 수집한 정보로 또 다른 질문에 대응할 수 있었다. 반면에 지나치게 사소하거나 범용적이지 않은 문의(예를 들어 사회학과 사무실이 어디냐는 질문 등)와 내가 잘 모르는 내용은 아는 척을 했다가 잘못된 정보면 크게 곤란해 질 수 있기 때문에 답변을 하지 않았다.

그냥 소소한 즐거움

왜 이런 활동을 시작했냐는 질문도 가끔 듣는다. 처음에는 가벼운 마음으로 게시판 활동을 시작하였다. 에브리타임은 보통 대부분의 이용자들이 자신의 닉네임을 드러내지 않고 익명인 상태로 사용한다. 나도 처음엔 다들 그러니까 따라서 익

명을 사용했다. 그런데 어느 날 친구가 에브리타임 게시판에서 닉네임을 사용한다고 하기에 “그냥” 나도 한 번 써보고 싶어서 쓰기 시작했다. 닉네임도 좋아하는 만화 캐릭터로 대강 지었는데 이렇게 널리 알려질 줄 알았다면 좀 더 고심해서 지었을 것이다. 처음 활동을 시작한 1학년 때는 인문사회과학캠퍼스와 자연과학캠퍼스 양 캠퍼스에 요일을 나눠서 통학했는데 자연과학캠퍼스에 가는 날에는 통학 시간이 꽤 길었기 때문에 심심함을 달래기에 적절한 활동이었다. 처음에는 그저 다른 사용자들처럼 일상 얘기 같은 시답잖은 글이나 댓글이나 달았지만 학교를 다니면서 내가 아는 정보가 점점 많아져 몇몇 질문 글에 답변을 할 수 있는 정도가 되었다. 원래 내가 아는 사실을 남에게 알려 주는 것을 좋아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답변할 수 있는 글이라면 보이는 족족 답변을 했다. 그런데 그렇게 꾸준히 활동을 하니 나를 기억하는 사람이 점점 많아진다는 것도 신기했고 답변에 고맙다고 감사 인사를 받을 때마다 기분이 좋았다. 숭고한 봉사 정신 같은 거창한 것을 가지고 활동한 게 아니라 이런 소소한 즐거움이 있었기에 멈추지 않고 지금까지 꾸준히 하게 된 것이다.

활동을 하는 또 다른 이유라면 나도 인터넷에서 다른 학우들에게 도움을 받았다는 점도 있다. 입학할 당시에는 나의 전공이 고등학생 때 원하던 전공이 아니었기 때문에 복수전공을 처음부터 고려하고 있었다. 하지만 입학하기도 전이라 정보를 스스로 찾는 법을 전혀 몰랐기 때문에 당시에 활성화 되어있던 커뮤니티인 “성대사랑”에서 복수전공 관련 질문을 올렸다. 이 때 받은 답변이 굉장히 자세하고 친절했기 때문에 첫 학기 수강신청 등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이후에도 1학년 재학 동안 여러 가지 질문의 답변을 받아 도움을 많이 받았고 나도 똑같이 활동을 하면 좋을 것이라 생각이 들었다.

소소한 힘듦

가끔 답변 활동이 너무 힘들거나 그만두고 싶지 않냐는 말을 듣는다. 사실 답변 활동 자체가 나에게 큰 부담이 되지는 않는다. 올라오는 질문은 대부분 정형화 되

어있기 때문에 답변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기 때문이다. 오히려 알려 주는 즐거움이 있어 계속 하는 것이지 결코 의무감에 했던 활동이 아니다. 보수를 받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다만 활동을 그만둘 정도는 아니지만 가끔씩 회의감이 든 적이 드물게 있다. 첫 번째로는 질문자가 지나치게 무례한 태도를 보이는 경우였다. 나는 AI 답변봇이 아니라 사람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예의를 지키며 글을 써줬으면 좋겠는데 내가 답변하는 기계인 것처럼 대하는 사람이 가끔씩 있다. 심지어 본인이 내 말을 잘못 이해해놓고 도리어 화내는 경우도 있었다. 두 번째로는 나에 대해 지나치게 큰 기대를 했는데 이를 충족시키지 못 했을 때 실망감을 있는 힘껏 드러내는 경우였다. 내가 모든 것이 완벽한 대학 생활을 했을 거라 기대하는 학우가 종종 있는데 나는 그저 평범한 학부생이기 때문이다. 학사제도를 비교적 잘 아는 편이고 취업에는 성공했지만 학교 평점이 엄청나게 훌륭하지는 않고 특히 연애 관련 상담은 내가 해줄 말이 없다. 세 번째로는 답변을 받아놓고 글을 지워버리는 경우다. 온라인에 자신의 흔적을 남기기 싫어하는 사람의 심정은 이해하지만 공들여 쓴 답변이 다른 필요한 사람이 볼 수도 없게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는 것은 굉장히 맥 빠지는 일이었다.

활동을 하다 보면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가끔씩 느끼게 된다. 다들 닉네임을 쓰지 않고 익명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왜 나는 굳이 닉네임을 써서 자신을 드러내냐는 것이다. 굳이 자신을 드러낼 이유가 없는 것도 사실이지만 나 자신이 드러나는 것이 두렵지 않은 이상 굳이 숨길 이유가 없다는 것도 사실이다. 그렇다면 남한테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나의 소신대로 행동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온라인에서 의사소통을 하는 만큼 면전에서는 듣지 않을 말을 가끔씩 듣기도 한다. 실제로 가끔씩 나를 돌려서 욕하는 글이 올라올 때도 있고 아주 드물게 직접 욕설을 듣거나 비하하는 일이 생기기도 한다. 워낙 온라인에서는 별 사람을 다 보게 되니 웬만한 글에 멘탈이 흔들리지는 않지만 나라고 완전히 상처를 안 받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활동에 도움을 받고 지지해 주는 사람이 훨씬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스스로 부끄러울 게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잠시 기분이 나빠질지언정 활동을 그만두겠다고 생각한 적은 없다.

현실로 연결된 소소함

안녕하세요, 닉네임 브로리님.

저는 이상원 교수님 연구실 소속 소프트웨어학과 17학번입니다.

꼭지로 메일을 받아 이렇게 연락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상원 교수님께서 브로리님의 에브리타임에서 교내 학생들에게 다양한 도움을 주시는 것을 보시고 이를 높이 평가하셨습니다.

그래서 미팅을 통해 에브리타임에서 하는 일과 관련하여 학교에서 비슷한 서비스를 할 수 있을지에 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하십니다.

혹시 미팅이 가능하시다면, 가능한 요일과 시간 알려주시면 교수님께 전달하여 미팅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처장님과 면담을 제의하는 이메일

브로리 게시판이 생긴 지 몇 개월이 지난 시점인 18년 11월에 흥미로운 연락이 왔다. 당시 정보통신처장이셨던 교수님의 연구실에 소속된 학우가 보낸 이메일이었는데 처장님께서 나의 활동을 인상 깊게 보았다고 하시며 게시판을 학내에 공식적으로 서비스화해 보는 것이 어떨겠냐며 정보통신처로 부르셨다는 것이다. 정보통신처는 삼성학술정보관 6층에 있었는데 당시에 마침 자연과학캠퍼스 기숙사에 거주 중이었기 때문에 무리 없이 방문할 수 있었다. 지나가면서 구경만 하던 학술정보관 교직원 입구로 들어갔던 게 신기하게 느껴졌다. 정보통신처에서 처장님을 보기 전 다른 직원 두 분과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학교 모바일 포털앱 킹고M이나 학교 챗봇인 킹고봇, 그리고 곧 개편될 학교 포털 GLS(실제로 19년 3월에 개편되었다.)에 대해 내가 불편했던 점과 건의하고 싶은 점을 토로할 수 있었다. 이후 처장님이 오셔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처장님께서 나를 근로장학생 형태로 고용하여 브로리 게시판을 학내 공식서비스화를 하는 게 어떠냐고 제안하셨다. 그런데 다른 직원분들은 학생들의 자유로운 공간을 학교에 얽매이게 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표했다. 가장 중요했던 건 나의 의사였는데 보수를 받게 되면 더 이상 지금처럼 모르는 질문은 모른다고 하는 등 부담 없이 답변할 수 없고 만약이라도 답변이 잘못될 경우 실질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는 압박이 생기는 것이 염려되어 결국엔 무산되었다. 그래도 정보통신처에서 연락을 받을 정도로

활동을 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굉장히 흥미로웠던 일화이다. 다만, 여러 명의 교직원 분한테 본명이 아닌 계속 브로리로 불리는 건 조금 창피한 경험이었다.

게시판 활동이 맺어 준 인연도 있다. 수많은 익명들 사이에서 꾸준하게 닉네임으로 활동을 하니 눈에 띄기 수밖에 없어 다른 질문을 하는 게 아니라 나라는 사람 자체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사람도 가끔 있는데 개인적으로 연락을 해서 실제로 만나는 일도 종종 있다. 신기하게도 연락을 하는 학우들이 나와 유사한 전공을 가진 경우가 대부분이라 만나면 커피를 한 잔 얻어 마시며 전공이나 진로 얘기나, 내 게시판 활동에 관한 비하인드 스토리 등을 이야기하며 어울리기도 했다. 19년 2학기에는 같은 수업에서 먼저 나를 알아봐 주고 수업이 끝나고 말을 걸어 준 것을 계기로 친해진 학우도 있었다. 답변 활동이 나에게 여러 소중한 인연들을 만나게 해주었던 것이다.

소소함에서 탄생한 거창함

게시판 활동은 나에게 실질적인 도움도 가져다주었다. 가끔 답변을 해줘서 고맙다고 기프트코인을 보내주는 학우들 덕분에 소소한 행복을 얻는 일도 종종 있다. 하지만 좀 더 결정적으로는 이 활동 자체가 나의 중요한 스펙이 되었다는 것이다. 2019년, 4학년이 되면서 나는 취업 준비를 시작했고 학과 동기들과 알고리즘을 공부하는 스터디 그룹 활동을 가졌다. 이때 같이 공부를 하던 동기들이 내가 게시판 활동을 하는 것을 알고 있었고 농담처럼 취업 스펙으로 이 활동을 활용해보라는 것이 어떠냐고 이야기하기도 했다. 나는 이때만 해도 진지하게 스펙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았고 그저 입사 원서를 쓸 때 자기소개서에 있는 성장 과정 항목에 한 줄로 짧막하게 언급 정도만 했을 뿐이다. 그리고 서류 전형과 SW 테스트를 통과하고 도달한 최종 임원면접에서 이런 질문이 나왔다. “양 캠퍼스간 복수 전공도 하시고 수업도 열심히 들으신 건 좋은데 너무 자신만을 위해 사신 게 아닌가요?” 라는 질문이었다. 상당히 맥락 없이 나온 압박 질문이라 당황하기 쉬운 상황이었었는데 다행히도 나에게서는 면접관도 예상하지 못한 최상급 답변으로 받아칠

수 있는 기회였던 것이다. 당시 기준으로 약 10개월간 3천여 개의 질문에 답했으며 정보통신처와 회의를 했던 경험까지 얘기하니 면접관도 흡족해하면서 “우리 회사에도 비슷한 게시판이 있으니 와서 활동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농담까지 들을 수 있었다. 브로리 게시판 답변 활동이 최종 합격을 결정한 중요한 요인 중 하나였다고 생각한다.


브로리
19/11/22 15:08

삭제

이 게시판에서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이 글에 공감 부탁드립니다.


MeWMeW
19/11/22 22:34

2051
185
36

꼭지
신고

브로리님에게 감사했던 일

<https://everytime.kr/402030/v/94807525>

브로리님이 에브리타임을 활용할 일이 생기신 것 같아서 자그마한 도움이라도 될까하고 글을 남겨요

저는 이제 졸업을 조금 앞둔 14학년 화석..이예요. 문과였지만 수학을 좋아했던 저는 1학년때부터 수학과목을 신청해서 들었는데, 이과수학 베이스 없이 듣는 대부분의 수학이 그렇듯 쉽지 않았어요.

그렇게 기말고사가 다가왔는데 이렇게 가다가는 진짜 망할것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의 도움이라도 구하고자 에브리타임에 질문글을 썼는데, 그때 브로리님이 답변해주셨어요. 글은 지워서 지금 확인할수 없지만 기말고사기간에 바쁜 시간을 내서 수학문제를 풀어주시면서도 화이팅이라고 응원해주셨던게 기억에 남네요

그 뒤에도 수학질문글을 몇번 더 썼었는데, 브로리님께서는 새벽까지도 답변을 해주셨어요. 비록 그 과목은 좋은 성적을 받지 못했지만, 그때 포기하지 않은 덕에 저는 주저없이 이과를 복수전공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다행히도 적성이 맞아서 취업도 하게 됐어요.

저는 브로리님이 참 멋있다고 생각해요. 에브리타임이라는 익명공간, 누군가는 자신의 안 좋은 면을 드러내기 쉬운 곳에서도 누군가를 돕기 위한 행동을 꾸준히 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자신을 드러내지 않아도 되는곳에서조차 남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매일 질문에 답해주는 브로리님, 얼굴도 모르고, 브로리님께 이 글이 전해질지도 모르지만, 참 감사했습니다. 저의, 그리고 많은 성공관대 학우분들의 브로리가 되어주셔서요.

2,051명의 학우들이 공감한 글과 나의 답변 활동에 고마움을 표한 학우의 글

활동을 하면서 가장 기뻐했던 일은 나의 답변 활동이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았을 때 일이다. 학생성공스토리 공모전에 지원하여 1차 서류 통과를 한 시점에서 2차 PT심사에 어필할 자료를 생각하던 중 브로리 게시판에 짝맞은 글을 올렸다. “이 게시판에서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이 글에 공감 부탁드립니다.” 라고 말이다. 공감이란 에브리타임 게시글에 누를 수 있는 추천 기능이고 하나의 글에는 한 사람당 한 번만 가능하다. 그리고 이 글은 2,051개의 공감과 댓글로 많은 응

원을 받았다. 사실 글을 처음 올릴 때는 이 정도로 압도적인 지지를 받을 거라고는 전혀 기대하지 않았는데 매우 놀라운 결과였다. 그리고 지금 에브리타임 성공관대 게시판에서 당당하게 공감수 1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내가 1학년 때, 그러니까 5년 전인 14년에 미분적분학 질문에 답변을 해줘서 큰 도움이 됐다며 고마움을 표하는 글을 어느 학우가 올렸다. 나의 답변이 도움이 되어 수학 공부를 포기하지 않아 이공계 복수전공을 무사히 마치고 취업까지 성공했다는 이야기였다. 이때 내가 공감 2천 개를 받은 글을 어디에 활용할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상태였는데 그동안의 답변 활동을 어딘가에 쓰기 위한 것으로 보여 도움을 주기 위해 일부러 글을 써 준 것이다. 무려 2천 개의 공감을 받았다는 것도 기뻐지만 나의 5년 전 작은 행보가 한 사람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는 사실을 실감할 수 있었기에 더더욱 기뻐다. 더 놀라운 사실은 저 고마움의 글을 쓴 학우가 알고 보니 이번 학생성공스토리 공모전의 또 다른 수상자인 도경희 학우라는 것이다. 나의 활동이 또 하나의 학생성공 사례를 이루는 데 도움이 되었다는 사실이 굉장히 인상 깊었고 그동안의 활동이 의미 있었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었다.

소소함의 미덕

사실 이 수기를 처음 쓰기 시작할 때는 깊은 고민이 있었다. 과연 학생성공 관점에서 나의 글을 읽는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나는 점이다. 이번 학생성공스토리의 다른 수상자 학우들은 뭔가 거창한 활동들을 많이 한 반면에 나는 온라인 게시판에서 소소하게 댓글이나 오랫동안 달았다는 것 밖에 없는데 대체 무슨 시사점을 남길 수 있을 것인가를 계속 생각했다. 그리고 낸 결론은 이것이다. 그 소소하고 작은 활동이라도 긍정적인 활동이 쌓인다면 세상에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이다. 오히려 소소한 활동이기에 누구나 부담 없이 세상에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사실을 전달할 수 있다면 그것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내가 생각하는 '학생성공'이란?

배우고 때때로 익혀 이로운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그릇을 만들고 나아가 타인과 세상에 이로운 영향력을 미치는 존재가 되는 것

멘토링으로 꿈꾸는 따뜻한 미래



정세윤(15학번, 기계공학부)

수기를 시작하며

인생을 살면서 많은 분들이 이유 없는 큰 도움을 주셨고, 대가 없이 인생 선배가 되어주셨다. 선배들의 가르침에 따라 나도 멘토가 되어 다양한 멘토링 활동을 전개했다. 받기만 하다가, 이제는 나도 세상을 따뜻하게 만드는 공동체로서 조금이나마 일조한 것 같아 굉장히 기쁘다. 이러한 멘토링과 관련된 경험을 통해서 ‘성공’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다만,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지, 그 방향성에 대한 답을 찾았기 때문에 ‘학생성공’을 이뤘다고 생각한다. 이 수기가 앞만 보며 달리던 사람들에게 잠시 멈추고 주위를 둘러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자발적인 봉사

봉사를 처음 시작하게 된 것은 더 오래전이지만, 스스로 봉사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든 것은 대학교에 입학했을 때다. 고등학교 3년 동안 학업에만 매달려 주변을 돌아보지 못했음에 반성했고, 주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되고 싶었다.

1학년 때 봉사동아리에 들어가서 지역아동센터에서 봉사활동을 했다. 첫 봉사 이후, 아이들이 생각보다 산만하고 공부를 마냥 좋아하진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런데도 봉사를 갈 때마다, 아이들이 밝고 활발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었고, 활동 내내 그 에너지가 전해져 오는 듯했다. 처음에는 도움이 필요한 곳에 내가 도움을 주기 위해 봉사를 간다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배우고 오는 사람은 항상 나였다.

롯데 멘토링 장학생

이러한 멘토링 경험을 토대로 롯데 멘토링에 지원했고, 2학년이 되는 때에 선발되었다. 롯데 멘토링은 지정된 아동센터에서 1년간 200시간의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장학금을 받는 활동이다. 이전에는 주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간단한 문제 풀이를 도와줬는데, 롯데 멘토링에서는 중학생이 멘티로 배정되어 책임감이 더욱 커졌다.

1년간 200시간을 멘토링 하지만, 장기적으로 멘티의 성적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멘티가 얼마나 스스로 공부를 했는가’라고 생각을 한다. 본래 멘토들에게 주어진 일은 할당된 문제집 설명, 채점, 해설이었다. 그러나 이렇게 공부만을 가르쳐준다면 일반적인 학원과 다르지 않을 것 같아서 멘토링의 의미를 살리기 위해 공부와 더불어 공부법을 하나하나 알려줬다. 사람마다 다양한 공부법이 있으나, 나 자신이 직접 겪은 다양한 시행착오를 알려주면서 이러한 공부법들도 있다는 점을 알려주고 싶었다.

이솜우화에는 여우와 두루미 이야기가 나온다. 접시를 준비했지만 상대방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기에 이들은 갈등을 겪게 된다. 나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 공부를 포함하여 멘티에게 해줄 말들을 적극적으로 준비하여 항상 뿌듯해하고 있었으나, 아동센터에서 우연히 "세운 쌤 곧대아님?"이라는 대화를 들었다. 내게 직접 한 말이 아니라서 반응을 하지는 않았으나, 항상 열심히 했다고 자부했던 나에겐

너무 가혹한 말이었다. 왜 멘티들이 나에 대해 그런 평가를 내렸는지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었다.

‘나 자신의 시각에서 멘티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한 말을 해준 것 같다. 그래서 이 멘티는 그렇게 느끼지 않았을까? 멘티는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았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 점에 대해 반성하게 되었다. 이 일이 있고 나서는, 프로그램을 기획할 때와 피드백을 할 때 항상 상대방 입장에서 적절했는지를 돌아보게 되었다.

멘토링을 받게 되다 - 사회리더 대학생 멘토링

사회리더 대학생 멘토링은 “각계 사회지도층 멘토와 대학생 멘티의 멘토링을 통한 ‘미래 대한민국을 이끄는 배움과 나눔의 인재 육성’”이라는 목적을 가진 한 국장학재단의 대학생 멘토링 프로그램이다.

법조 직업에 관심이 많았기에 대형 로펌에 재직 중인 변호사님을 멘토로 신청했다. 멘토님께서서는 첫 만남에서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학교나 사회에서 만난 선배들의 조언이 큰 힘이 되었다. 먼저 겪은 경험이나 고민이 진로 탐색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라는 말씀을 하시며 우리에게 아낌없는 조언을 해주셨다.

사법시험을 준비한 이유, 사법시험을 준비하다가 로스쿨에 입학하며 느낀 불안감, 재판연구원을 하다가 로펌을 선택하기까지의 고민들, 변호사로서 뿌듯했던 일 등 먼저 고민해본 선배님의 말씀을 들으며 법조인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점점 확고해졌다. 진로 선택에 대한 도움뿐만 아니라, 사람과 일을 대하는 태도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많은 교훈을 주셨고, 내가 성장할 수 있도록 디딤돌이 되어주셨다. 또한 내 삶을 돌아보는 기회가 되기도 했다.

변호사님께 멘토링을 받으며 멘토와 멘티의 관계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었다. 변호사님께서서는 멘토링 활동을 계획하실 때 ‘어떻게 멘티들에게 필요한 부분들을 만을 잘 말해주셨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멘티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었다.

멘토님께서서는 대가 없이 큰 도움들을 주셨고, 내게 인생 선배가 되어주셨다. 이 경험을 통해서 나중에 내가 직업을 갖게 되었을 때, 어떻게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지 알게 되었다. 지금은 대학생이라서 주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멘토링을 진행하고 있지만, 변리사가 된 후에는 법조 직역으로 고민하고 있을 공대생들에게 내가 가진 경험으로 고민을 덜어줘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다.



법무법인 바른에서의 첫 만남

진로를 찾아 떠나는 여행 - 투어리스트 시즌1

성균멘토링캠프는 한국장학재단과 성균관대학교의 후원을 통해 방학 기간에 교육지원을 필요로 하는 지역의 초·중·고등학교 및 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하여 학습지도, 진로지도, 고민상담, 예체능 분야 창의 활동 등의 주제로 멘토링을 진행하는 캠프이다.

우리 대학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을 보던 중 성균멘토링캠프를 알게 되었다. 아동센터 봉사활동에서는 한 번에 할 수 있는 시간과 인원엔 제한이 있고, 혼자 준비하다 보니 편향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는 한계점이 있는데, 성균멘토링캠프는 이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았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의논하면서 준비하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할 수 있었다. 덕분에 높은 완성도를 기대할 수 있었고 내가 생각지 못한 부분에 대한 의견도 들을 수 있었다. 그리고 한 번에 4~5일 정

도의 기간 동안 많은 멘티들을 대상으로 하기에 상당히 유익한 프로그램이 될 것 같았다. 이런 의미 있는 활동을 다 같이 하면서 친해질 수 있고, 마지막에는 정말 뿌듯할 것 같았다.

지역아동센터 또는 초·중·고등학교 중에서 멘토링 캠프를 진행할 기관을 선정해야 했다. 고려한 사항들은 다양했는데, 우리가 가장 우선 생각했던 질문은 “우리가 가장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곳은?”이었다. 지역아동센터와 초등학교, 중학교에 가더라도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살면서 고민이 가장 많고 공부를 제일 열심히 한 시기가 고등학생일 때라는 공통된 의견이 있었기에 고등학교로 선정을 했다.



투어리스트의 첫 발걸음, 문태고등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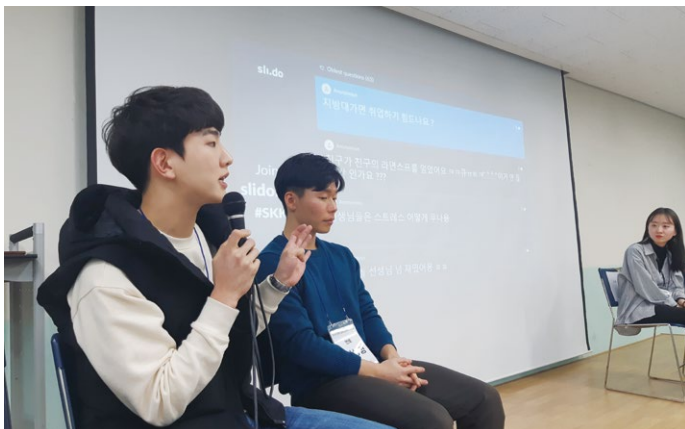
초·중학생과의 멘토링보다 어려울 수 있지만 고민이 가장 많고 도움이 많이 필요한 시기인 고등학생 멘티들에게 정말 유익한 캠프를 만들어 주고 싶었다. 관련된 캠프는 모두 참고해서 도움이 되는 캠프를 기획하고자 했다. 그렇기에 항상 ‘우리가 고등학생인 우리를 만난다면 해주고 싶은 말은?’이라는 생각을 기반으로 주제와 프로그램을 선정했다. 학업과 진로로 고민하고 있을 멘티들을 위해 ‘나를

찾아 떠나는 진로여행'을 주제로 잡았고, 다 같이 진로를 찾아 여행을 떠난다는 느낌으로 팀 이름도 이에 걸맞게 '투어리스트(Tourist)'로 정했다. 유익한 구성으로 채우면서도 멘티들이 지루하지 않을만한 프로그램들을 계획했다.

너의 고민을 보여줘

반응이 가장 좋아서 지금도 기억에 남는 프로그램은 '너의 고민을 보여줘'이다. “곤대 아님?” 파트에서 말한 것처럼 멘티들과의 소통을 중요시 생각했기에, 멘티들에게 질문을 실시간으로 받아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궁금증을 해결해주려 했다. “화학을 좋아하지만, 화학과는 취직이 안 된다던데 화학공학과를 가도 될까요?”, “제 친구가 남자친구 있는 여자애를 좋아하는데 조언 부탁드립니다.”, “지방대 가면 취업하기 힘드나요?”, “선생님들은 스트레스 어떻게 푸나요” 등 다양한 질문들이 나왔고, 멘토들이 실시간으로 답변을 해줬다.

궁금했던 부분들을 바로 해결해주다 보니 가장 반응이 좋았고, 친해지는 계기가 되어서 좋았다는 평이 많았다. 마지막에는 학생들과 멘토링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고 친해지는 계기가 되었다.



가장 반응이 좋았던 프로그램 '너의 고민을 보여줘'

시즌2를 준비하며

준비를 많이 했어도 직접 해보니 피드백할 부분들이 많았다. 일단 멘토 전원이 이공계열로 구성이 되어있다는 이유로 멘토 자기소개가 끝나고 이탈하는 문과 학생이 있었다. 문과 멘토의 부재를 우리도 인지하고 있었고, 이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각자 문과 진로 소개 및 상담 부스를 진행했으나 근본적인 해결은 아니어서 아쉬웠다.

멘토 중 문과가 없는 점은 아쉬웠지만, 멘토 전원이 이공계인 부분을 단점이 아니라 팀의 강점으로 살리기로 했다. 멘티들을 이과 학생들로만 구성하고, 직접 실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우리가 시즌2에서 자신 있게 내민 것은 ‘이공계 특화 멘토링 캠프’였고, 아두이노를 활용하여 학생들에게 생소한 코딩을 알려 주었다. 프로그래밍 소개 및 아두이노로 직접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이렇게 장점으로 바꾸니 확실히 멘티들의 피드백이 달라졌고, 더욱 우리의 특색을 살릴 수 있었다.

단점을 강점으로 - 이공계를 위한 투어리스트 시즌2

처음 시즌1을 계획할 때부터 시즌2를 염두에 두고 있지는 않았다. 하지만 시즌1이 끝나자마자 우리는 자연스럽게 다음 캠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자연스레 이어졌지만, 그 동기를 생각해보면 가장 큰 부분이 멘티들의 진심 어린 감사함인 것 같다. 멘티들이 남겨준 글들을 읽으면 지금도 뭉클한 감정이 올라오는데, 당시에는 정말 울컥했고 앞으로도 평생 기억에 남을 것 같다. 리허설, 캠프진행, 피드백, 리허설, 캠프진행, 피드백의 반복이어서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었지만 힘든 만큼 재미있고 뿌듯했다. 그리고 처음이라 피드백할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다. 이 부분들을 보완해서 더욱 완성도 있는 멘토링캠프를 진행하고 싶었다.

앞서 말했듯이 ‘이공계 특화 멘토링 캠프’를 보여주자는 생각으로 아두이노를 활용한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프로그램은 아두이노 및 코딩과 관련된 기초지식인

전반부와 실제로 아두이노 LED 키트 체험의 후반부로 나누었다. 전반부에서는 코딩의 가장 기초인 블록코딩과 관련된 알고리즘들을 설명해주고, 아두이노의 작동원리와 응용할 수 있는 분야들에 대해서 소개를 해줬다. 한 멘토가 아두이노를 활용하여 S-hero 프로젝트를 진행했기에, 실제 만들었던 것과 작동 영상도 보여줄 수 있었다. 후반부에서는 아두이노 LED 키트를 다뤘는데, 아두이노 키트의 대표적인 코딩 소스들을 참고해서 실제로 코딩의 흐름에 대해서 설명해줬다. 학생들이 원리와 코딩에 대해서 이해하자, 코드를 수정해서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내기도 했다. 이 프로그램과 학과소개를 통해서 공대가 어떤 곳인지 느낌으로 와닿았다는 멘티도 있었고, 너무 흥미로워서 더 찾아보고 공대로 진학하고 싶다는 멘티도 있었다.



투어리스트의 두 번째 발걸음, 제주여자고등학교

기억에 남는 일

누군가가 나에게 고등학교 생활 중 가장 잘한 점을 묻는다면 나는 ‘주기적인 복습’을 말할 것이다. 에빙하우스의 망각곡선을 활용해서 일정한 주기마다 복습을 해줬고, 이는 굉장한 성적 향상을 가져왔다. 나는 15분간 자유주제로 발표하는 힐링

토크콘서트 프로그램에서 ‘망각곡선과 이를 활용한 복습방법’으로 발표를 했다. 발표를 준비하면서 이 발표를 통해서 한 명이라도 체계적으로 복습을 하게 된다면 발표는 성공이라는 생각을 했다.

멘토링이 모두 끝나고, 몇몇 멘티로부터 정말 감명 깊게 들어서 휴대폰 배경화면을 에빙하우스의 망각곡선으로 해줬고 복습에 많은 도움이 됐다는 연락을 받았다. 대화를 나눠보니 내가 활용했던 것보다 본인에 맞추어 더 잘 활용하고 있었다. 멘티들의 뛰어난 응용능력에 놀랐고 학업 고민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 것 같아서 정말 뿌듯했다.

시즌3를 준비하며

시즌2에서도 마찬가지로 다양한 피드백이 나왔다. 가장 큰 피드백 사항은 아두이노를 이미 배운 학생이 있었다는 점이다. 아두이노가 핵심 프로그램이었던 만큼 하루를 모두 사용하는 프로그램으로 기획했는데, 잘하는 아이들에게는 지루한 시간이 될 수도 있었다. 시즌 3에서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아두이노 및 코딩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언급하고, 간단한 3D 설계프로그램 소개와 3D 프린팅, 이를 결합하여 아두이노로 제어하는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다.

앞으로

현재까지 멘토링을 받으면서 많은 고민이 해결되어왔고, 덕분에 마음이 편안해짐을 느꼈다. 내가 느낀 것처럼 앞으로 다양한 멘토링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이 편안해질 수 있도록 돕는 삶을 살고 싶다. 현재는 변리사라는 꿈을 꾸고 있는데 후에 변리사가 된다면 내가 도움을 받은 것처럼 대학생들의 고민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자 한다. 혹시 중간에 진로가 바뀌더라도, 최종적으로는 고민의 과정에 있는 후배들을 돕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 후배들이 또 누군가의 멘토가 되어, 사회에서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에게 따뜻한 희망이 되는 그런 미래를 꿈꿔본다.

내가 생각하는 ‘학생성공’이란?

학생 신분으로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미래에 어떤 사람이 될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찾아가는 과정이다. 큰 성공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고, 구체적으로 찾지 않았더라도 충분한 고민을 했다면 ‘학생성공’ 이라고 생각한다.

2019 대학생활 성공 이야기를 담다

우리들의 성공수다

1판 1쇄 발행 2020년 2월

2판 1쇄 발행 2020년 3월

발 행 처 성균관대학교

기 획 · 편 집 학생성공센터
(03063) 서울시 종로구 성균관로 25-2 국제관 1층
T. 02-740-1768

디자인·제작 이아임디자인
(12274)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로204
T. 070-7558-2486

인문사회과학캠퍼스

(03063)서울시 종로구 성균관로 25-2 국제관 1층

T. 02-740-1768

자연과학캠퍼스

(16419)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서부로 2066 삼성학술정보관 1층

T. 031-299-4078